금융안정 상황

Ⅰ. 신용시장 11
Ⅱ. 자산시장 29
Ⅲ. 금융기관 38
Ⅳ. 자본유출입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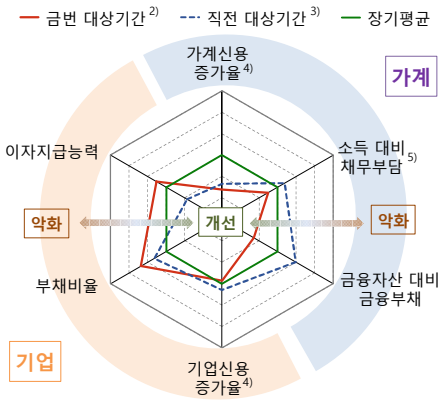
Ⅰ. 신용시장

민간신용/명목GDP 비율[1]은 가계신용[2]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면서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4월 들어 늘어나고 있으며,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기업신용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된 가운데 부채비율은 상승하고 이자지급능력은 약화되었다(그림 Ⅰ-1).

그림 Ⅰ-1. 신용시장 상황 변화 지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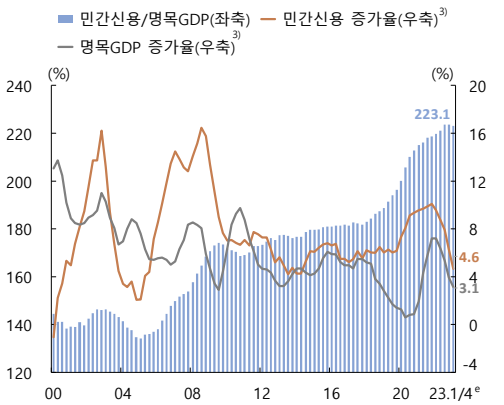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1/4분기말(부채비율과 이자지급능력은 22년말(중))
3) 2022년 3/4분기말(부채비율과 이자지급능력은 21년말(중))
4) 명목GDP 대비 가계 및 기업 신용 비율 기준
5) 가계부채/처분가능소득
자료: 한국은행 시산

1. 신용 레버리지

민간신용 레버리지 높은 수준을 지속

민간신용[3]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 비율)는 2023년 1/4분기말 223.1%(추정치)[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2년 3/4분기말(223.6%) 대비해서는 0.5%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명목GDP[5]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2022년 3/4분기말 5.4%에서 2023년 1/4분기말 3.1%로 둔화되었으나, 민간신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같은 기간중 7.9%에서 4.6%로 줄어들면서 명목GDP 증가율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한 데 기인한다(그림 Ⅰ-2).

그림 Ⅰ-2. 민간신용[1]/명목GDP[2] 비율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2023년 1/4분기는 추정치)
2)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의 합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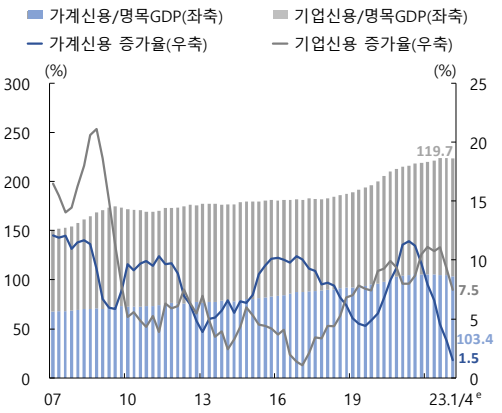
1)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 평가 시 민간신용 부문별 증가율,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주택가격 수준, 은행 레버리지 등 다양한 금융·실물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 2010)가 권고한 글로벌 공통 참고지표(common reference guide)인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2) 가계신용과 가계부채는 모두 가계가 보유한 채무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측면에서 볼 때는 가계신용으로 가계 측면에서는 가계부채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민간신용 하위 항목으로서 가계신용 및 기업신용이라고 분류하였다.
3) BCBS(2010)는 민간신용을 '가계 및 비금융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채무(debt funds)'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민간신용 지표는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대출금, 정부융자) 및 기업(대출금, 채권, 정부융자) 부채의 합을 이용하였다.
4) 2023년 1/4분기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 및 기업신용은 가계신용 증가율(가계신용통계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기업 부문 신용 증가율 등을 설명변수로 한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각각 추정하였다.
5)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의 합으로 해당 분기 명목GDP 성장률과 차이가 있다.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축소된 반면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확대 지속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축소된 반면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계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2023년 1/4분기말 가계신용/명목GDP 비율은 103.4%로 2022년 3/4분기말 104.8%에서 1.4%포인트 하락하였으나, 기업신용/명목GDP 비율은 같은 기간중 118.7%에서 119.7%로 1.0%포인트 높아졌다.

가계신용은 부동산경기 둔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기업신용은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 및 회사채 순발행 지속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그림 Ⅰ-3).

그림 Ⅰ-3. 부문별 신용 레버리지 및 신용 증가율[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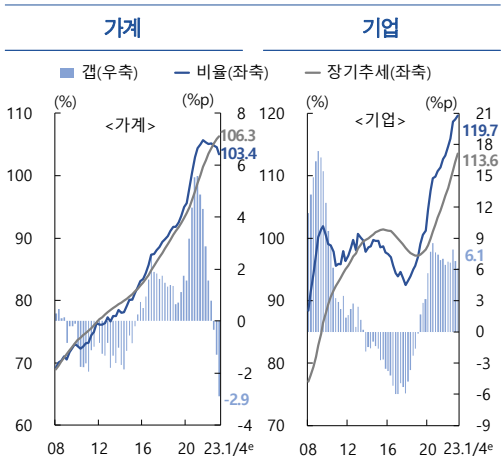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2023년 1/4분기는 추정치)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레버리지 장기추세 하회 폭 확대

가계신용 레버리지가 장기추세를 하회하는 폭[6]이 확대되었다. 가계신용/명목GDP 갭은 2022년 3/4분기 마이너스로 전환(-0.3%포인트)된 이후 2023년 1/4분기에 -2.9%포인트로 확대되었다.

한편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장기추세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상회하는 정도는 축소되었다. 기업신용/명목GDP 갭은 2023년 1/4분기 +6.1%포인트로 2022년 3/4분기(+7.9%포인트)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그림 Ⅰ-4).

그림 Ⅰ-4. 부문별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및 갭[1)]



주: 1) 부문별 신용/명목GDP 비율과 HP필터에 기반한 장기추세치 (추정기간: 75년 1/4분기~23년 1/4분기, λ=25,000) 간 차이
자료: 한국은행

6) 다만 우리나라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2023년 1/4분기말 102.2%로 세계 34개국 중(홍콩 95.1%, 영국 81.6%, 미국 73.0%, 일본 65.2% 등) 가장 높았으며,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통계 기준으로도 2022년 3/4분기말 105.3%를 기록해 스위스(128.9%), 호주(113.6%)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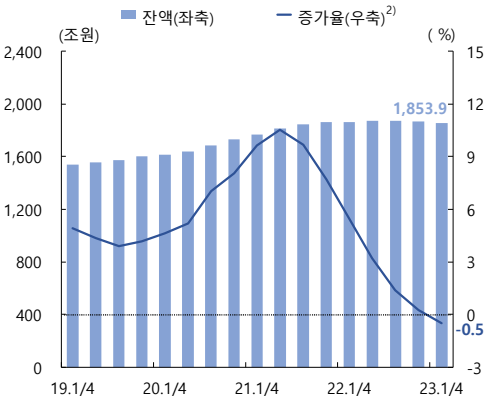
2. 가계신용

가계신용 전년동기대비 감소 전환

2023년 1/4분기말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1,853.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5% 줄어들면서 감소[6] 전환하였다[7](그림 Ⅰ-5). 항목별로는 가계대출이 1,739.5조원(가계부채 중 93.8%)이며, 재화나 서비스 판매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인 판매신용은 114.4조원(6.2%)이다. 다만 4월 들어서는 가계대출이 다시 늘고 있어 2/4분기중에는 1/4분기에 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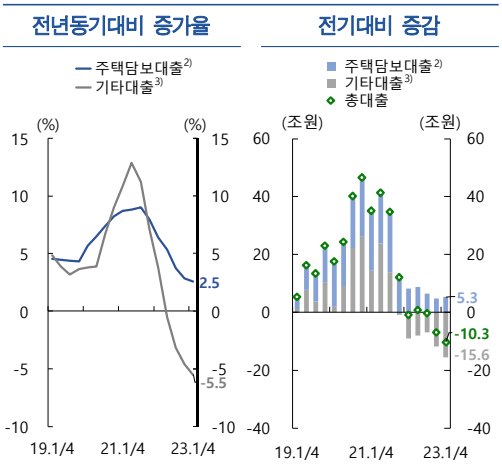
대출유형별로 보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1/4분기말 1,017.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였다.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2021년 4/4분기말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기타대출의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기타대출은 721.6조원으로 대출금리 상승[9]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하였다. 대출증감액(전기대비)으로 보면 2023년 1/4분기중 주택담보대출은 5.3조원 증가하였으나, 기타대출은 15.6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0](그림 Ⅰ-7).

그림 Ⅰ-5. 가계신용[1]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Ⅰ-6. 가계대출[1] 대출유형별 변동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대출 등
자료: 한국은행

6) 2023년 1/4분기말 현재 가계신용은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2022년 3/4분기말 1871.1조원 대비 17.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디레버리징 정도는 주요국에 비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일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1] 디레버리징[2] 발생 분기 수(개)	2	22	9	0	13	0	20

주: 1) 2007년 1/4 ~ 2022년 3/4분기중(62개 분기) 2) 전기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감소한 경우 자료: BIS

8) 2023년 4~5월중 가계대출은 3월말 대비 3.0조원 증가하였으며, 증가폭도 4월 +0.2조원에서 5월 +2.8조원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6월 9일).

9) 예금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0년 12월 3.5%에서 2021년 12월 5.1%, 2022년 12월 8.0%, 2023년 3월 6.4%의 변동 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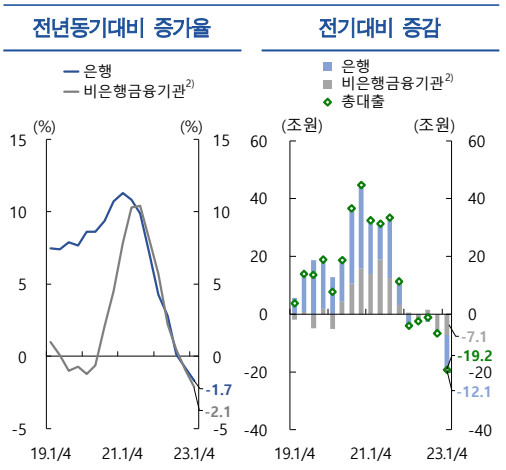
10) 2023년 4~5월중 가계대출 유형별로 보면 기타대출 규모는 2.5조원 줄었으나(4월 -1.7조원, 5월 -0.8조원),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 등의 영향으로 3월(+1.0조원)에 이어 5.4조원(4월 +1.8조원, 5월 +3.6조원)늘어났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6월 9일).

금융업권별로 보면, 2023년 1/4분기말 기준 모든 업권에서 가계대출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대출(890.5조원)은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하였으며, 비은행금융기관대출(639.1조원)[11] 도 전년동기대비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증감액(전기대비) 변화를 보더라도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2021년말까지 늘어났으나, 2022년 1/4분기말부터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감소폭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2023년 1/4분기중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은 전기대비 각각 12.1조원, 7.1조원 감소하였다(그림 Ⅰ-7).

가계 전반의 소득 및 자산 대비 채무부담은 감소[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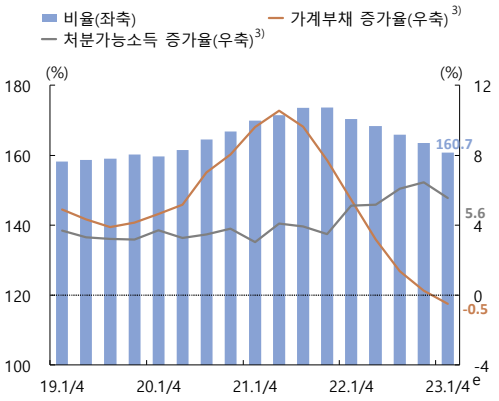
2023년 1/4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은 160.7%(추정치)로 2022년 3/4분기(165.8%)에 비해 5.1%포인트 하락하였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둔화세가 확대되는 데 반해 처분가능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소득 측면에서의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부담은 2022년 1/4분기 이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그림 Ⅰ-8).

그림 Ⅰ-7. 금융업권별 가계대출[1] 변동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등 제외)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Ⅰ-8. 처분가능소득[1] 대비 가계부채[2] 비율



주: 1) 2023년 1/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직전 3개년의 연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11) 비은행금융기관중에서는 2023년 1/4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로 저축은행 대출(+4.3%)은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 대출(-6.7%)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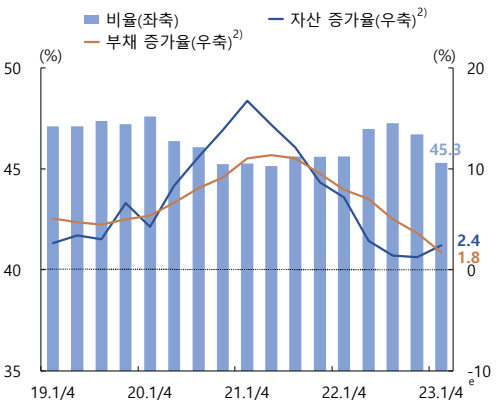
12)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부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가계 전체의 부채 및 소득, 자산간 비율로 일반적으로 부채보유가구의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DSR, Debt Service Ratio)의 움직임과는 다를 수 있다.

한편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2023년 1/4분기말 45.3%(추정치)로 2022년 3/4분기말(47.3%) 대비 하락하여 자산측면에서의 채무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시장 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주식평가액 증가 등으로 자산 증가세는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13](그림 Ⅰ-9).

취약차주 비중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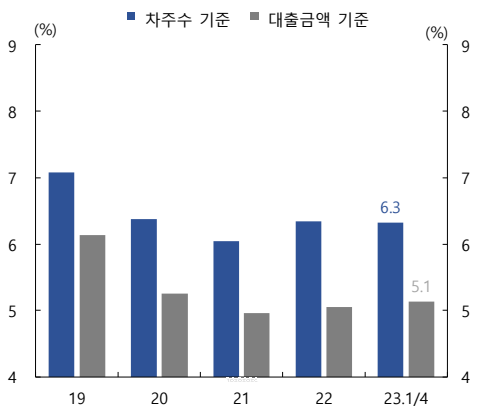
전체 가계부채 보유 차주 중에서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주의 비중은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14]인 취약차주 수가 전체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4분기말 6.3%로, 2022년 1/4분기말 전기대비 0.3%포인트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4분기말 5.1%(2022년말 5.0%)를 보이고 있다(그림 Ⅰ-10).

그림 Ⅰ-9.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1)]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2023년 1/4분기는 추정치)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Ⅰ-10. 취약차주 비중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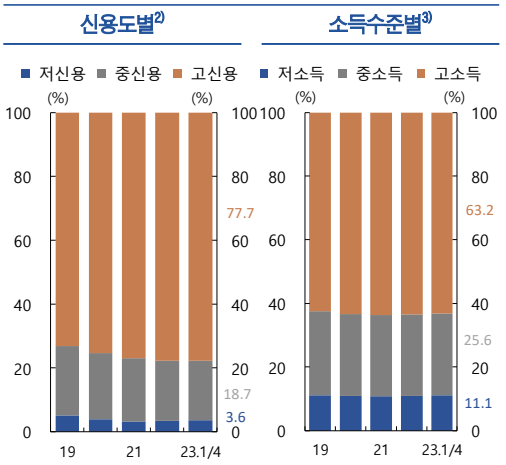
13) 22년도 수신금리 상승의 여파로 현금 및 예금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부진하였던 주식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에(KOSPI 지수 2,155(22.3/4분기말) → 2,477(23.1분기말)) 힘입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등의 평가액이 상승하였다.

14) 2021년부터 개인의 신용평가제도가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신용을 신용점수 840점 이상(NICE신용정보 신용점수 기준, 이하 동일), 중신용을 신용점수 665점 이상 839점 이하, 저신용을 신용점수 664점 이하로 각각 설정하였다. 취약차주 특성에 근접해 있는 잠재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 이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의 비중은 2023년 1/4분기말 기준 17.0%를 기록하고 있다.

차주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별 분포를 보면, 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3년 1/4분기말 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은 77.7%로 2022년 3/4분기말(77.6%)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은 63.2%로 2022년 3/4분기말(63.4%)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Ⅰ-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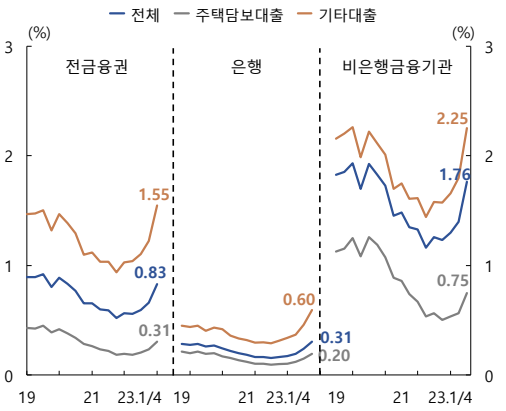
가계대출 연체율[15]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3년 1/4분기말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0.31%, 1.76%로 2022년 3/4분기말 대비 각각 0.12%포인트, 0.46%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대출유형별로는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기타대출의 연체율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도 상대적으로 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Ⅰ-12).

그림 Ⅰ-11. 신용도 및 소득수준별 가계대출 구성비[1)]



주: 1) 대출금액 기준
2) 고신용 신용점수 840점 이상, 중신용 665~839점, 저신용 664점 이하
3) 고소득 상위 30%, 중소득 상위 30~70%, 저소득 하위 30%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그림 Ⅰ-12.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1)2)] 가계대출 연체율[3)]



주: 1)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대출 제외
3)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5)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신규연체 상황 및 향후 연체율 전망에 대해서는 <참고 1>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상황 점검」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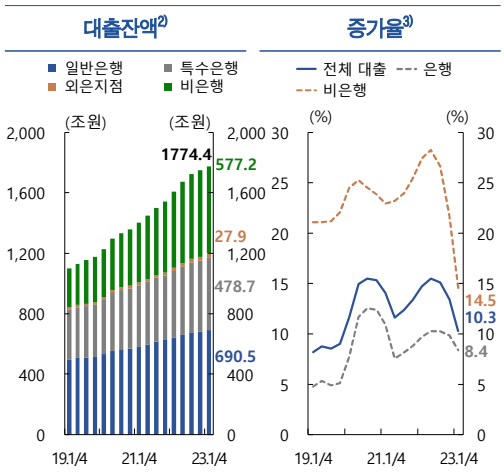
3. 기업신용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2023년 1/4분기말 현재 1,774.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하였다. 기업대출은 수출 부진에 따른 업황 저조, 대출금리 부담, 부동산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은 연 7.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6]

금융업권별로 보면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은행 기업대출은 2023년 1/4분기말 1,197.1조원(일반은행 690.5조원, 특수은행 478.7조원, 외은지점 27.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4%(일반은행 7.7%, 특수은행 8.5%) 증가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17]의 기업대출은 577.2조원[18]으로 전년동기대비 14.5% 증가하였는데, 리스크 관리,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대출태도가 강화[19]되면서 모든 비은행 업권에서 기업대출 증가율이 전년말보다 큰 폭 둔화[20]되었다(그림 Ⅰ-13).

그림 Ⅰ-13. 금융기관[1] 기업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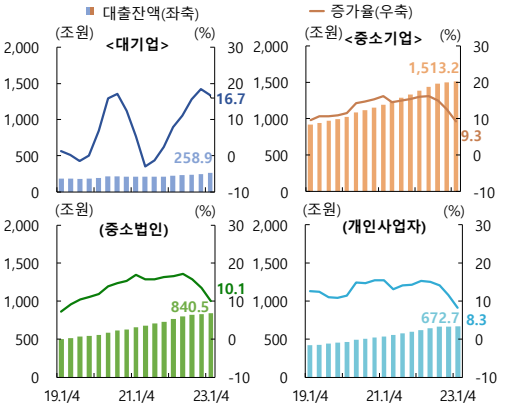


주: 1) 은행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비은행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준
2) 기말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업규모별[21]로 보면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증가율이 하락하였다. 대기업대출(258.9조원, 전년동기대비 16.7%)은 운전자금 수요로 인해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1,513.2조원, 9.3%)은 부동산경기 둔화,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중소법인(840.5조원, 10.1%)과 개인사업자(672.7조원, 8.3%) 모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그림 Ⅰ-14).

16) 자세한 내용은 <참고 2>「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요인 및 연체가능성 점검」을 참조.
17) 비은행금융기관 기업대출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합계 기준이다. 다만 자료 제약으로 인해 일부 업권은 기업대출에 금융보험업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8) 업권별 기업대출 규모는 상호금융조합 350.9조원(비은행 기업대출 중 60.8%), 보험회사 100.2조원(17.4%), 여신전문금융회사 69.5조원(12.0%) 저축은행 56.7조원(9.8%)이다.
19)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상호저축은행(22년 4/4분기 -57 → 23년 1/4분기 -35 → 2/4분기(전망) -33), 신용카드회사(-44 → -14 → -7), 상호금융조합(-48 → -25 → -22), 생명보험회사(-22 → -12 → -20) 등 조사대상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년 4월 26일)를 참고.
20) 업권별 기업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상호금융조합 22년말 29.6% → 23년 1/4분기말 22.9%, 보험회사 4.4% → 1.3%, 여신전문금융회사 16.6% → 6.6% 저축은행 19.2% → 4.1%이다.
21) 자료의 제약으로 기업규모별 대출 분석 시 기업규모가 구분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일부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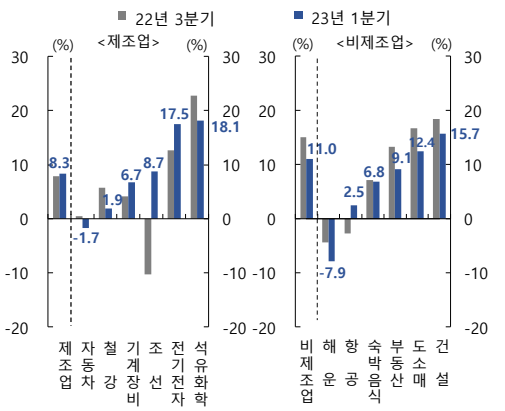
그림 Ⅰ-14. 기업규모별 기업대출[1)2)3)]



주: 1)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합산 기준(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료 제약으로 일부 업권 및 기간에 금융보험업 대출을 포함)
2) 기말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3) 중소법인은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을 의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업종별[22)]로 보면 제조업 기업대출은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전년동기대비 8.3%)를 지속하였다.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건설, 도소매,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11.0%)가 둔화되었다(그림 Ⅰ-15).

그림 Ⅰ-15. 주요 업종별 금융기관 기업대출[1)] 증가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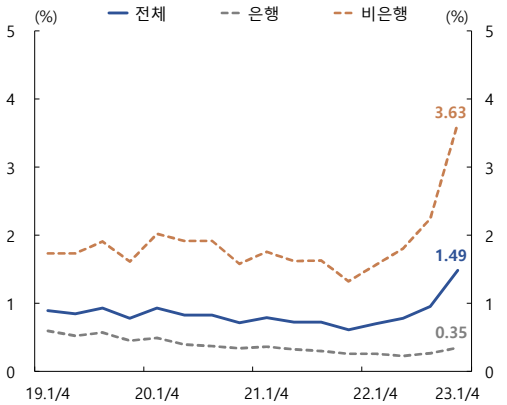


주: 1) 업종별 분류가 가능한 은행 및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합산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기업대출 연체율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상승하였다.[23)] 2023년 1/4분기말 현재 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0.35%로 2022년 3/4분기말 대비 0.12%포인트 상승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3.63%로 동기간 1.83%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Ⅰ-16).

그림 Ⅰ-16. 은행[1)] 및 비은행금융기관[2)] 기업대출 연체율[3)]



주: 1) 국내은행 기준
2)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보험약관대출 제외),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준
3)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22)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업종별 분류가 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3) 다만,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2009~19년중 분기별 기업대출 연체율 평균 기준, 은행 0.93%, 비은행 6.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회사채 및 CP 순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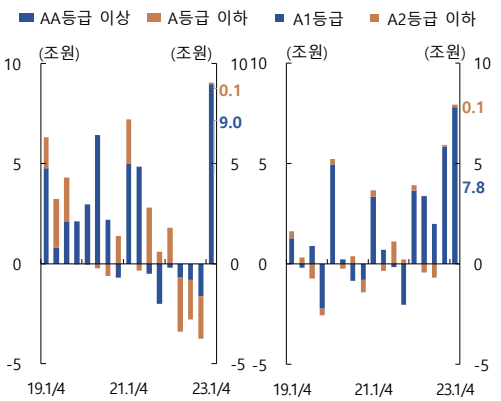
직접금융시장에서 회사채는 신용경계감 완화와 투자수요 회복에 따른 발행여건 개선 등으로 우량물을 중심으로 2023년 1/4분기중 순발행되었다. CP 역시 우량물과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순발행되었다(그림 Ⅰ-17).

부채비율 상승

기업[24]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22년말 82.9%로, 2021년말(80.6%)에 비해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21년말 82.0% → 22년말 84.6%)은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56.5% → 54.2%)은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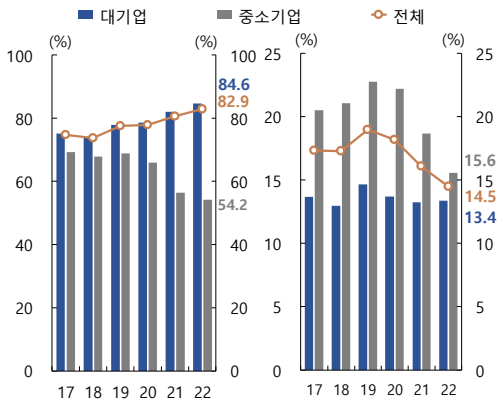
한편,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과다부채 기업)의 비중은 2022년말 14.5%로 전년말(16.1%)보다 하락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21년말 13.2% → 22년말 13.4%)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18.6% → 15.6%)은 하락하였다(그림 Ⅰ-18).

그림 Ⅰ-17. 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조달[1] 동향



주: 1) 금융지주회사, 유동화회사(SPC) 발행분 제외, 순발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연합인포맥스

그림 Ⅰ-18. 기업규모별 부채비율[1]



주: 1) 부채/자기자본, 기말 기준
2) 완전자본잠식 기업 포함
자료: KIS-Value

24) 이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4/4분기말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중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총 2,786개 기업(대기업 1,360개, 중소기업 1,426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속보성 있는 분석을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외감기업 등 더 큰 표본을 활용한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높은 성장세 지속, 수익성은 다소 저하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증가율(전년대비)은 2022년 18.7%로, 2021년(19.1%)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21년 19.3% → 22년 18.9%)은 높은 매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중소기업(15.9% → 11.5%)은 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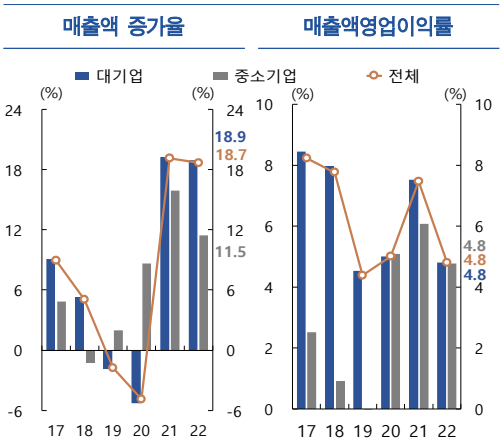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2022년 4.8%로, 전년(7.5%)에 비해 하락하였다. 업종별로는 영업실적이 저조한 일부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하락하였다.[25]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1년 7.5% → 22년 4.8%)과 중소기업(6.1% → 4.8%) 모두 수익성이 저하되었다(그림 Ⅰ-19).

이자지급능력 약화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26](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2022년 5.1배로, 수익성 저하에 시장금리 상승 영향이 더해지면서 2021년(8.7배) 대비 하락하였다.[27]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1년 9.2배 → 22년 5.4배)과 중소기업(2.9배 → 2.1배) 모두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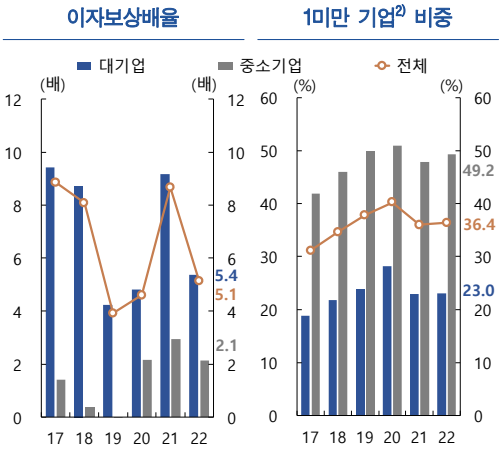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비중은 2021년말 36.0%에서 2022년말 36.4%로 소폭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21년말 22.9% → 22년말 23.0%)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소기업(47.8% → 49.2%)은 상승하였다(그림 Ⅰ-20).

그림 Ⅰ-19. 기업규모별 매출액 증가율[1] 및 매출액영업이익률[2]



주: 1) 전년동기대비
2) 영업이익/매출액
자료: KIS-Value

그림 Ⅰ-20.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1]



주: 1) 영업이익/총이자비용
2) 영업손실 기업 포함
자료: KIS-Value

25) 수익성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공급업(21년말 -2.8% → 22년말 -13.9%)에서 영업적자 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철강(12.8% → 5.2%), 전기전자(12.5% → 8.8%), 석유화학(8.1% → 5.7%) 등 업종에서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다소 하락하였다.

26) 이자보상배율 계산시 분자는 영업이익을, 분모는 회사채이자 등을 포함한 총이자비용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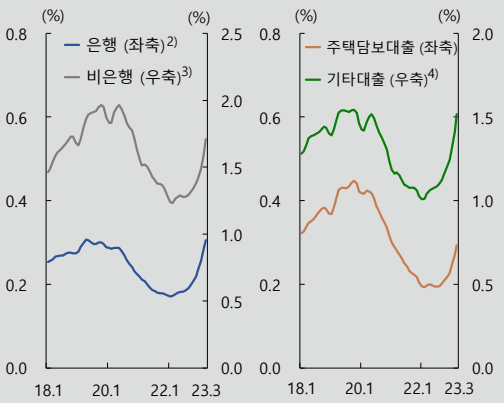
27) 이자보상배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공급(21년말 -1.4배 → 22년말 -7.0배), 조선(-9.5배 → -7.5배), 숙박음식(-0.2배 → 0.4배) 등의 업종에서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전기전자(36.5배 → 19.1배), 철강(17.4배 → 8.8배), 석유화학(13.8배 → 8.9배), 건설(8.2배 → 4.7배), 부동산(3.5배 → 2.4배) 등 업종에서는 영업실적 부진 및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참고 1.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상황 점검[1)]

코로나19 위기중 낮은 수준을 지속하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권 전반에서 높아졌으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연체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연체율 상승은 신규대출 취급이 둔화된 가운데 기존대출 연체잔액이 증가한 데 기인[2)]하고 있어 가계대출 부실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연체율 상황과 빈티지(취급시기별) 연체율 점검을 통해 가계대출 연체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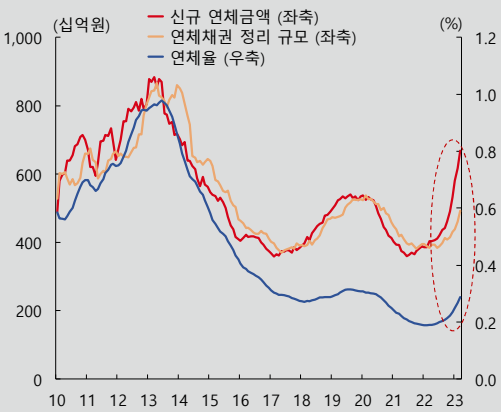


주: 1) 3개월 이동평균 기준
2) 국내은행 기준 (이하 동일)
3)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동일)
4) 신용대출, 기타담보대출, 보증대출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및 신규연체 상황

그간 가계대출 연체 규모는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최근에도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대로 신규연체 채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이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신규 연체금액이 정리 규모를 상회함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신규연체 및 연체정리[1)] 규모[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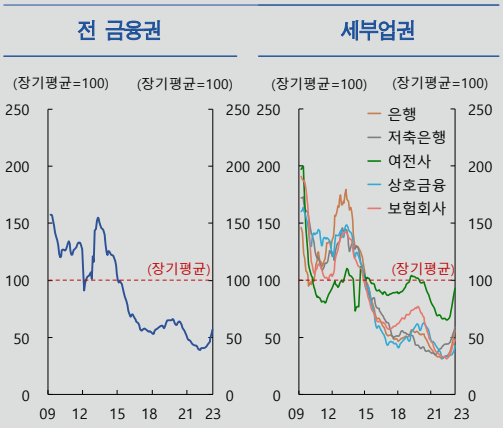
주: 1) 매·상각, 정상화, 회수 등
2) 월중 신규연체 및 연체정리 규모
3) 6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다만 아직 각 업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및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2009~19년 중)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3년 3월말 현재 0.31%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0.8% 내외) 및 장기평균(0.54%)을 하회하고 있다.[3)] 비은행금융기관중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3년 3월말 현재 각각 5.6%, 2.8%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장기평균 수준(9.3%,

1) 본고는 노유철·이도홍·이해인(안정총괄팀)이 작성, 박구도(금융안정기획부장)·임광규(안정총괄팀장)·김정훈(통화금융부장)이 검토하였다.
2) 2022년 하반기중 연체율 분석 대상 가계대출 잔액이 0.9% 감소하는 동안 가계대출 연체잔액(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16.4%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에는 연체잔액이 전월대비 20% 이상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은행중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근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2023년 3월말 기준 0.5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2%)을 하회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5.8%, 6.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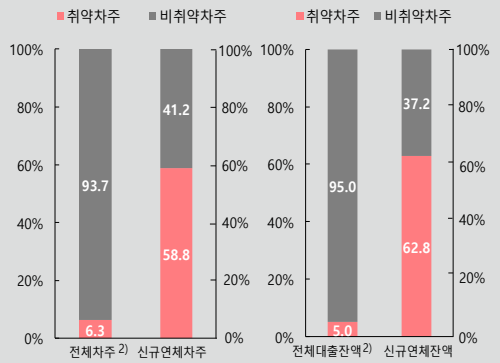
가계대출 연체율 수준[1]의 장기평균과 비교[2]



주: 1) 장기평균(2009~19년중 월별 연체율의 평균)을 기준치 100으로 하고 각 시점별 연체율을 장기평균 대비 수준으로 환산
2) 3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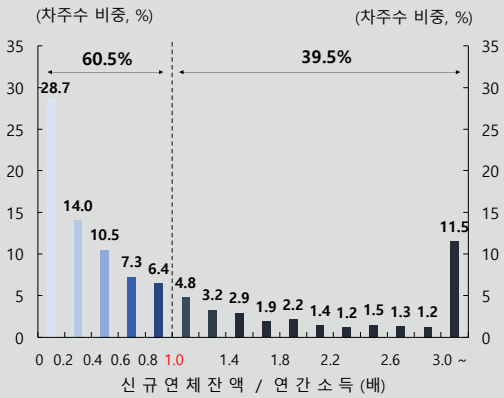
한편 최근 늘어난 가계대출 연체채권은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의 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취약차주로부터 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말 기준 취약차주는 전체 가계대출 차주수 및 대출잔액의 각각 6.3%, 5.0%에 불과하나, 2022년 하반기중 신규연체차주와 신규연체잔액을 대상으로 보면 취약차주가 각각 58.8%, 6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신규연체 취약차주중 39.5%는 신규연체잔액이 차주의 연간소득액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난 연체채권의 상당 부분이 상환에 의한 정상화보다는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으로 귀결되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4]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신규연체 차주[1] 현황 : 취약 및 비취약 차주



주: 1) 2022년 2/4분기말 연체잔액 대비 4/4분기말 연체잔액이 증가한 차주
2) 2022년 4/4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신규연체 취약차주[1]의 신규연체잔액/연간소득 비율 분포



주: 1) 2022년 2/4분기말 기준 취약차주이면서 2022년 하반기중 가계대출 연체잔액이 증가한 차주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빈티지 연체율을 통한 향후 연체율 흐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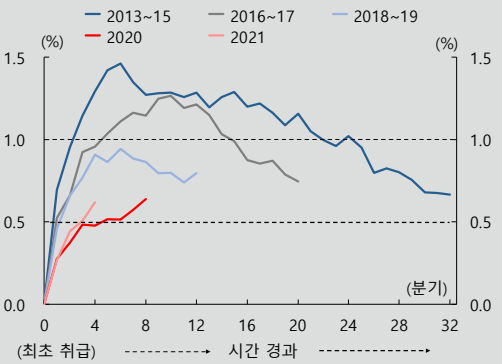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가계대출 연체율은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빈티지(vintage) 연체

(0.8% 내외)에는 못 미치나 장기평균(0.40%)보다 높은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아직 장기평균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2023년 3월말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이 0.77%로 시중은행(0.30%) 및 지방은행(0.55%)보다 높으며 상승속도가 빠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예컨대, 은행의 경우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요주의여신에 대해서는 해당 여신의 7%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연체로 이어질 경우 고정이하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으로 분류되어 연체 기간에 따라 20~100%의 대손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율의 개념을 활용하여 가계대출을 취급시기별로 나누고[5]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체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3~19년중 취급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공통적으로 취급 직후 약 6~8개 분기에 걸쳐 가파르게 상승한 후, 1.0~1.5% 수준을 정점으로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경향을 보여왔다.[6] 그러나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의 경우 낮은 금리 수준과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연체율의 오름세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완만해졌고 연체율 수준도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년 이후 취급된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과 정책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그간 이연되어 온 연체가 일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는 한동안 가계대출 연체율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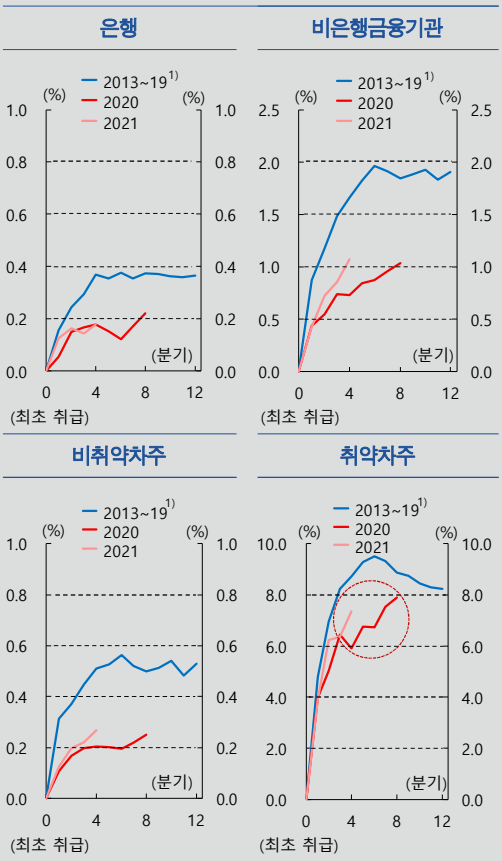
가계대출 빈티지 연체율 추이[1)]



주: 1) 분기별 빈티지 연체율을 이용하여 연도별 빈티지 연체율을 시산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한편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 압력은 특히 취약차주 및 비은행금융기관[7]에서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이 취급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눌려있는 데다, 앞서 보았듯이 코로나19 대응 정책지원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왔던 취약차주의 대출을 중심으로 최근 신규연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취약차주의 빈티지 연체율을 보면,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빈티지 연체율의 업권별 · 차주별 추이



주: 1) 2013~19년중 분기별 빈티지 연체율을 바탕으로 시산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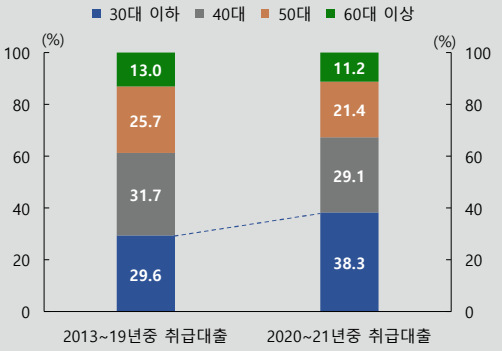
5) 가계대출의 취급시기를 분기별로 나누고 각각의 빈티지 연체율을 계산해 본 결과, 연중 분기별 빈티지 연체율의 흐름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분기별 빈티지 연체율을 이용하여 연도별 빈티지 연체율을 시산하였다.

6) 2013년 이후 대출금리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빈티지 연체율은 그 오름세가 점차 완만해지고 정점에서의 연체율 수준도 2013~15년중 1.5% → 2016~17년중 1.3% → 2018~19년중 0.9%로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실제 금융기관 업무보고서를 통해 집계한 금융권 전체 대상 가계대출 연체율(2013~19년중 평균 1.2%) 또한 같은 기간중 완만하게 하락해 왔다.

7) 2022년말 기준 취약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중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60.8%를 차지하여 취약차주의 대출은 은행보다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

또한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중 30대 이하 차주 가계대출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높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19년중 취급된 가계대출은 30대 이하 차주의 대출이 전체의 29.6%였으나 2020~21년중 취급된 가계대출의 경우 동 비중이 38.3%로 상당폭 확대되었다. 해당 차주들의 소득기반이 여타 연령에 비해 다소 취약[8]한 만큼, 한동안 30대 이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예상보다 높게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 차주의 연령대별 비중[1]



주: 1) 취급시기별 가계대출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평가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취약차주와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날 수 있어 가계대출 연체율도 당분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9] 특히 2020~21년중 저금리 환경 및 각종 정책지원 조치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가계대출 부실이 점차 현재화되고 누적되어 가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그간 금융기관들이 높아진 신용위험에 대응하여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해 온 만큼, 가계대출 연체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10] 다만 신규연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정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동시에 자본확충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계대출 연체채권 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차주들이 필요에 따라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11]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연체관리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금리상승시 채무상환부담의 급격한 증대로 부실채권이 일시에 늘어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8) 2020~21년중 가계대출을 받은 30대 이하 차주중 저소득(전체 가계대출 차주 중 소득 하위 30%) 차주의 비중은 약 9.1%로 동 기간중 가계대출을 받은 40~50대 차주중 저소득 차주의 비중인 7.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30대 이하 차주중 저신용 차주의 비중은 2.9%로 나타나 40~50대 차주의 4.0%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였다.

9) 다만 신규연체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그에 상응하여 매·상각 등을 통한 부실여신 정리 규모를 크게 확대할 경우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세는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가계대출 부실위험 추이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연체율뿐 아니라 신규연체 발생 규모를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10) 은행들이 부실여신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늘려온 결과,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일반은행 기준 2022년 1/4분기말 199.7% → 2/4분기말 219.8%→ 3/4분기말 228.1% → 4/4분기말 231.0%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내 각 업권 역시 최근의 고정이하여신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과 자본비율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1) 최근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나 다중채무자, 기초수급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동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이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수단을 비교해보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상담 기회 확대와 비용부담 절감 등 세심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 2.

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요인 및 연체가능성 점검[1]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2]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고금리, 경기 둔화 등 경제여건 악화로 그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연체율이 상승 전환함에 따라 자영업자 부문의 누적된 잠재부실이 단기간내 현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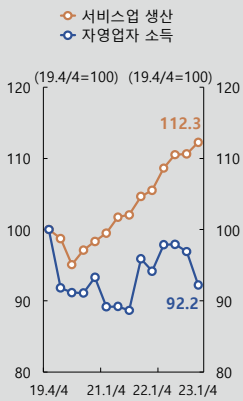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가계부채DB 등의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부동산가격 하락, 높은 원리금 부담 및 경기 둔화시 관련 대출의 연체위험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영업자 업황 및 대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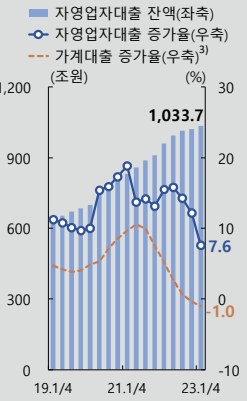
서비스업 생산은 방역조치가 해제된 작년 2/4분기 이후 빠르게 반등하면서 2019년말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소득은 대출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더디게 개선되면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여전히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1/4분기말 현재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33.7조원[3]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684.9조원) 대비 50.9% 늘어난 규모이다.

서비스업 생산[1] 및 자영업자 소득[2]



자영업자대출 잔액 및 증가율[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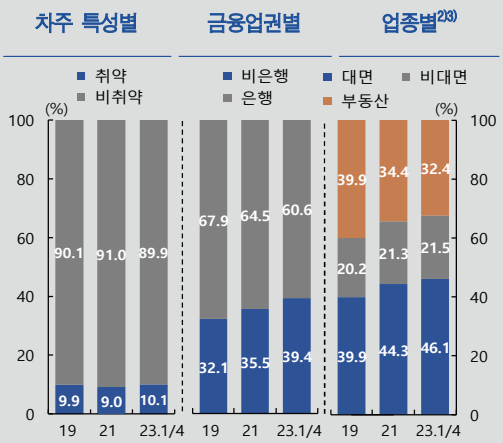


주: 1) 서비스업 생산지수(실질, 계절조정) 기준
2) 자영업 가구의 사업소득·근로소득(실질, 계절조정) 합산 기준
3) 전년동기대비
4) 가계신용통계 가계대출(판매신용 제외)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서비스업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지난해 자영업자 부채가 취약차주[4]·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위주로 늘어난 점에 비추어 자영업자 부채의 전반적인 질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하였던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이 2021년말 9.0%에서 2023년 1/4분기말 10.1%로 상승하였다. 또한,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이 2021년말 35.5%에서 2023년 1/4분기말 39.4%로 늘어났으며, 경기에 민감한 영세업종 위주인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대출 비중 또한 44.3%에서 46.1%로 확대되었다.

1) 본고는 김재영·신정후(안정분석팀)가 작성, 박구도(금융안정기획부장)·이정연(안정분석팀장)·이정헌(시장총괄팀장)·한경철(검사총괄팀장)이 검토하였다.
2) 한국은행은 가계부채DB(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산하여 자영업자대출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3) 2023년 1/4분기말 자영업자대출(1,033.7조원, 차주 수 313.3만명)은 개인사업자대출 680.2조원, 가계대출 353.5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취약차주로 분류하였다. 다만, 데이터 제약 등으로 본고에서는 가계대출 기관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를 다중채무자로 정의하였다. 한편, 다중채무자 대출 비중(21년말 69.3% → 23년 1/4분기말 71.3%) 역시 취약차주와 마찬가지로 확대되었다.

자영업자대출 구성 비중[1]



주: 1) 전체 자영업자대출 잔액 대비
2) 업종이 식별된 자영업 차주의 대출잔액 대비
3) 대면업종: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여가서비스
비대면업종: 대면서비스업, 부동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한편,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전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은 2023년 3월말 현재 1.00%로 과거 장기평균(2012~19년중 평균 1.05%)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부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되는 등 대출 건전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모습이다.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작년 하반기 이후 4.30%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취약차주는 같은 기간중 0.0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5] 금융업권별로 보면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1.25%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은행은 0.21%포인트 상승하였다. 업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0.38%포인트 상승하여 여타 업종에 비해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1]

(%, %포인트)

	12~19년 평균	19년말	22.6월말 (A)	23.3월말 (B)	B-A
▸전체[2]	1.05	0.76	0.47	1.00	+0.53
▸차주 특성별[3]					
- 취약	11.16	10.27	5.70	10.00	+4.30
(다중채무)	1.85	1.43	0.75	1.42	+0.67
- 비취약	0.24	0.09	0.08	0.17	+0.09
▸금융업권별[2]					
- 은행	0.48	0.29	0.16	0.37	+0.21
- 비은행	6.10	2.47	1.27	2.52	+1.25
▸업종별[4]					
- 대면	0.58	0.38	0.22	0.60	+0.38
- 비대면	0.53	0.42	0.19	0.37	+0.18
- 부동산	0.33	0.13	0.09	0.16	+0.07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2) 개인사업자대출 기준
3) 가계부채DB 상 자영업 차주 대출 기준
4)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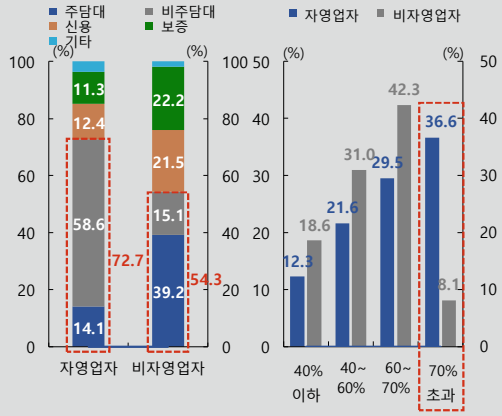
자영업자 부채 관련 취약요인 점검

자영업자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72.7%로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54.3%)에 비해 상당히 높아[6]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할 수 있다. 특히 LTV 규제가 느슨[7]한 데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 비중이 58.6%에 달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비주담대(상호금융 기준[8])를 LTV 구간별로 보면 LTV 70%를 초과하는 고LTV 대출 비중이 36.6%(비자영업자는 8.1%)에 이른다. 최근 상업용부동산가격이 하락 전환[9]한 가운데 주택에 비해 낙찰가율[10]이 낮은 상가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대출 특성상 부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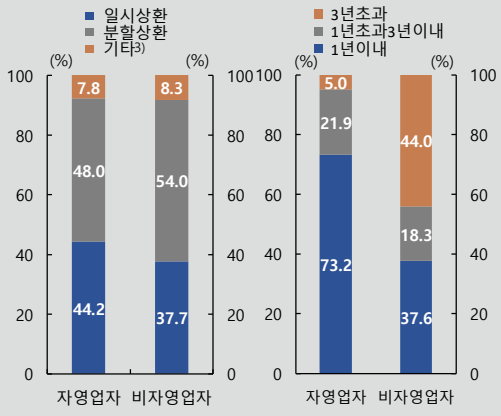
5) 한편, 다중채무자 연체율의 경우 취약차주와 비교해 낮은 상승폭(0.67%포인트)을 기록하면서 복수의 대출을 받았더라도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차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자영업자의 경우 상가 등 영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실물자산 비중이 높지만 소득흐름이 불규칙해 담보 없이 대출받기가 어렵다.
7) 가계 비주담대의 경우 금융당국이 2022년 9월부터 LTV 한도를 70%로 규제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비주담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LTV 규제 없이 통상 80% 내에서 금융기관별로 자체 내규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8) LTV 구간별 비주담대 비중은 자료 제약 등으로 상호금융(전체 자영업자대출 잔액의 29.7%, 23년 1/4분기말 기준)만을 포함하였다.
9) 전국 중대형 상가 가격(자본수익률, 한국부동산원 기준)은 202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4/4분기부터 하락 전환되고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다(22년 1/4분기 0.83% → 3/4분기 0.70% → 4/4분기 -0.01% → 23년 1/4분기 -0.15%).

대출유형별 비중[1)2)] 비주담대의 LTV 구간별 비중[1)3)]



주: 1) 2023년 1/4분기말 기준
2) 전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기준
3)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분할·일시상환 대출 비중[1)2)] 대출만기별 비중[1)4)]



주: 1) 2023년 1/4분기말 기준
2) 자영업자 및 비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기준
3) 한도대출, 리볼빙 등
4)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이 많아 비자영업자보다 대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이자비용도 비자영업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11)]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부채는 일시상환대출과 만기 1년 이내 단기대출 비중이 높아 차환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2023년 1/4분기말 현재 자영업자대출의 일시상환방식 비중은 44.2%로서, 비자영업자(37.7%)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출 비중이 73.2%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대출이 만기연장[12)]되고는 있으나, 부동산가격 하락 지속시 대출한도가 일부 축소되거나 재연장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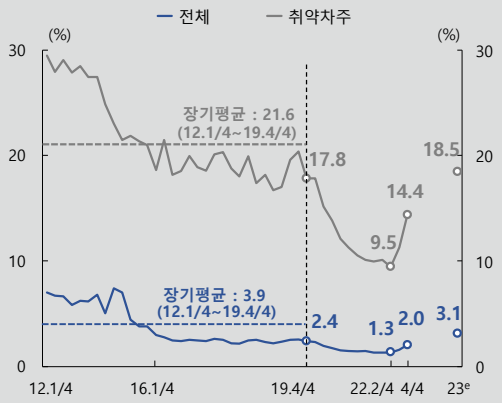
향후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위험 전망

기존 연체율 지표보다 연체위험을 광범위하게 포착하기 위해 연체가 시작(5영업일 이상)되었거나 세금을 체납한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잔액 모두를 연체위험대출로 간주하였다.[13)] 동 대출이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자영업자대출 연체위험률로 정의하여 산출해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이다. 전체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위험률은 2022년 2/4분기말 1.3%에서 2022년말 2.0%로 높아졌으며, 이중 취약차주의 연체위험률은 9.5%에서 14.4%로 상승하였다. 향후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상 밖의 경기 회복 지연, 상업용부동산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취약차주 위주로 연체위험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10) 전국 상가 낙찰가율(낙찰가액/감정가액, 법원경매정보 기준)은 2022년 1/4분기(71.8%)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1/4분기 현재 66.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73.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1) 2023년 1/4분기말 기준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액(가계부채DB)은 3.3억원으로 비자영업자(0.9억원)의 3.7배 규모이다. DSR(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자영업 가구의 2021년 DSR이 33.7%로 비자영업 가구의 DSR(27.8%)을 상회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에서도 2023년 1/4분기중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14.4만원)이 비자영업 가구(12.5만원)를 상회하였다.
12) 2023년 1~3월중 개인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률(8개 은행 기준)은 96.7%(2012~22년중 월평균 96.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3) 통상 대출건전성 지표로 사용되는 연체율 지표는 1개월 이상 연체된 계좌의 대출잔액만을 반영하기에 부실가능성이 높은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복수의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비중(23년 1/4분기말 71.3%)이 높아 특정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동일 차주가 보유한 다른 대출도 연쇄적으로 부실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대출 연체위험률 모형[14]을 통해 경기부진, 상업용부동산가격 하락, 높은 대출금리 지속시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위험률 변화를 추정해 보았다. 우선, 금년중 서비스업 생산이 작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15]되고, 상업용부동산가격이 최근 추세대로 소폭 하락[16]하며, 대출금리[17]는 2023년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18] 추정 결과, 금년말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위험률이 3.1%(12~19년중 장기평균 3.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취약차주의 연체위험률은 18.5%(장기평균 2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년말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위험률[1] 추정



주: 1) 연체 시작(5영업일 이상) 및 세금체납 차주의 대출잔액 / 전체 대출잔액
자료: 한국은행 시산

시사점

아직까지는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양호한 모습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에 비해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 높은 원리금 상환부담, 단기 및 일시상환 중심의 부채구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향후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상 밖의 경기회복 지연, 상업용부동산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다만, 앞서 추정한 연체위험대출이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대출 중 잠재부실위험이 높은 대출에서 연체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연체우려가 높은 취약차주에 대해서 새출발기금[19]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이 회복된 정상차주의 경우 자발적인 대출 상환을 유도하고 자영업자 부채구조를 단기에서 장기로,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경우 비주택부동산 담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상업용부동산가격 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급격한 자금애로를 겪지 않는 선에서 자영업자의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체계도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14) 2012년 1/4분기 ~ 2022년 4/4분기중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상업용부동산가격 상승률(전년동기대비), 중소기업 대출금리(잔액 기준, 기간중 월평균), 전기 연체위험률이 포함된 선형회귀모형을 구축하여 추정하였다.
15) 금년중 서비스업 생산은 한국은행 경제전망치(1.4%, 23.5월 기준) 및 작년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6.0%, 경제성장률 2.6%) 등을 고려하여 3.7% 증가한다고 전제하였다.
16) 상업용부동산가격(중대형 상가의 자본수익률 기준)의 경우 최근의 하락세(23.1/4분기중 -0.15%, 전분기대비)를 반영하여 금년중 0.5% 하락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17) 2023년 1/4분기중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잔액 기준, 기간중 월평균)는 5.3%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8)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85.3조원, 23.3월말 기준) 중 92%(78.8조원)를 차지하는 만기연장은 3년(25.9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8%(6.5조원)인 상환유예는 유예조치 종료(23.9월말) 이후 거치기간(1년)과 최대 60개월(28.9월까지)의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6.8일). 본고에서는 상환유예 이용차주의 대부분(98%)이 상환계획서를 작성한데다, 원리금 상환기간이 충분히 주어진 점을 고려하여 유예조치 종료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19)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최대 3년간 30조원 규모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채무조정 신청액이 4.2조원(23.5월말 누계 기준)에 그치고 있어 신청요건을 완화하거나 신청시 불이익(신용패널티 부과, 신규 금융거래 제약 발생 등)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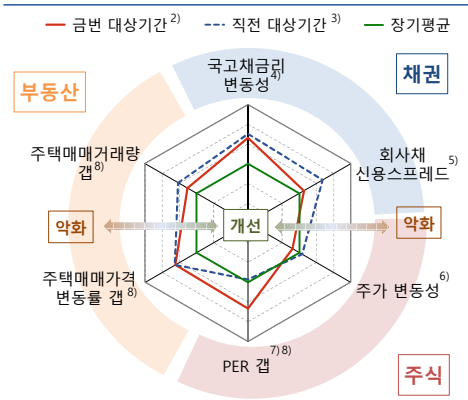
Ⅱ. 자산시장

자산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국내외 통화긴축에 대한 기대 변화, 글로벌 은행 불안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보이면서 큰 폭 하락하였으나 5월 들어 반등하였다.

주가는 주요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국내 전기전자 업황 반등 기대 등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큰 폭 상승하였다.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금년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완화되었다. 반면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그림 Ⅱ-1).

그림 Ⅱ-1. 자산시장 상황 변화 지도[1)]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1~5월중(주택매매거래량 갭은 2023년 1~4월중)
3) 2022년 6~12월중
4) 국고채(3년) 금리의 월별 변동성 평균 기준
5) 회사채(A-등급) 금리 - 국고채(3년) 금리 기준
6) 일별 V-KOSPI의 평균 기준 7)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8) 갭은 각 지표의 장기 평균 대비 격차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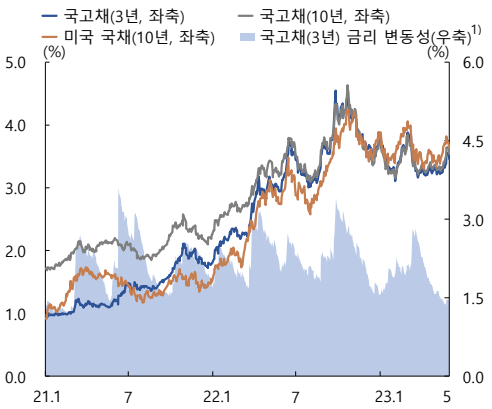
1. 채권시장

장기시장금리 큰 폭 하락 후 반등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대 및 물가·경기지표 추이, 3월 중순 실리콘밸리 은행(이하 'SVB')·크레디트 스위스(이하 'CS')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큰 폭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국고채 금리는 연초 기관들의 투자 재개,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기조 완화 기대[1)] 등으로 큰 폭 하락하여 1월 중순 이후 기준금리를 하회하였다. 다만 2월 들어 미국의 견조한 고용지표, PCE 물가 예상치 상회 등으로 긴축기조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큰 폭 반등하였다. 그러나 3월 중순 이후 미국 및 유럽 은행 부실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미 연준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2)]되면서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재차 하락하였다. 4월 금통위 이후에는 낮아진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 미 지역은행 불안 완화[3)], 미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 등 상승요인과 5월 FOMC 결과가 예상보다 완화적이라는 평가, 미 물가지표 예상치 하회 등 하락요인이 엇갈리며 비교적 제한된 범위(3년물, 3.20~3.34%)에서 등락하였다. 그러나 5월 중순 이후 미 물가·고용지표 예상치 상회,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국내외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세수부족 등에 따른 국고채 수급우려[4)]가 부각되면서 상당폭 반등하였다(그림 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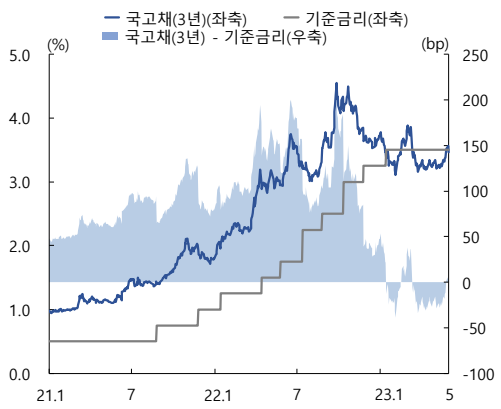
1) 일본은행(BOJ)의 수익률곡선 관리정책(YCC, Yield Curve Control) 유지 결정(1.18일),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시사(1.25일),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언급(2.1일), 라가르드 ECB 총재의 더 균형 잡힌 인플레이션 리스크 언급(2.2일) 등에 기인하였다.

그림 Ⅱ-2.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주: 1) 지수가중이동평균(EWMA)에 의거 일별 변동성 산출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그림 Ⅱ-3.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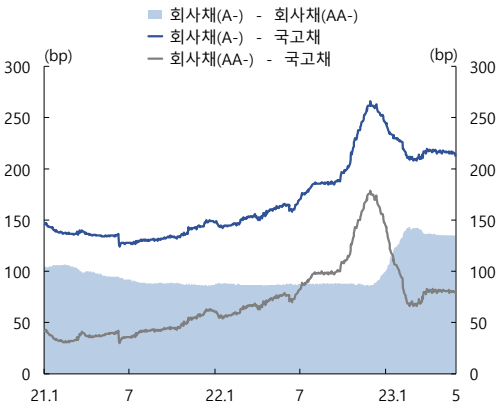
국고채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 간 스프레드는 1월 중순 이후 한달 남짓 역전되었다가 2월 중순 이후 해소되었다. 3월 중순 들어 SVB·CS 사태 등으로 재차 역전되었으나 5월 금통위 이후 국고채 금리가 반등하면서 역전현상이 대부분의 만기에서 해소[5]되었다(그림 Ⅱ-3).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축소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정부의 시장안정대책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완화된 가운데 연초 기관들의 투자가 재개되고 국고채 대비 금리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큰 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3월 중순 이후 위험회피심리 강화, 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다소 확대되었다. 4월 이후에는 일부 취약부문에 대한 신용경계감 지속에도 금리 변동성 축소, 금리 메리트 부각 등으로 3월말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한편 신용등급간 스프레드(AA- 및 A- 기준)는 연초 비우량물에 대한 신용경계감 등으로 상당폭 확대되었다가 3월 하순 이후 소폭 축소[6]되었다(그림 Ⅱ-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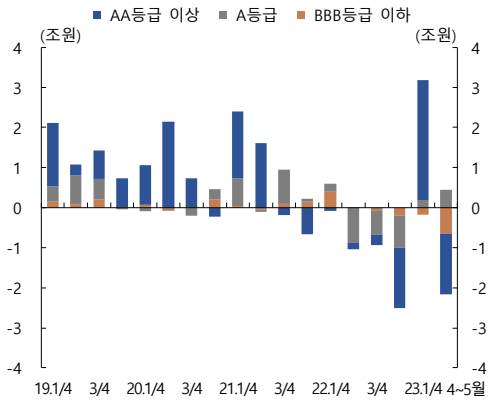
2) 3월 FOMC 기자간담회에서 파월 미 연준 의장은 SVB 사태 등 은행 불안에 따른 신용위축이 금리인상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며 상당수 FOMC 참석자들이 이를 전망(SEP)에 반영하였다고 발언하였다.
3) 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First Republic Bank)의 1/4분기 대규모 예금 인출 발표 및 주가 폭락(4.25일) 등으로 미국 지역은행 관련 우려가 재확산되었으나,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자산 및 예금 전액을 인수하기로 결정(5.1일)하면서 관련 불안이 진정되었다.
4) 2023년 1~4월중 국세수입(134조원)은 수출 부진, 자산가격 둔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3.9조원 감소하였다.
5) 5.26일 이후 모든 만기에서 역전이 해소되었다가 이후 국고채 금리가 다소 조정받으면서 5.31일 기준 3·5년물만 소폭 역전된 상황이다.
6) 회사채 신용등급간((A-) - (AA-)) 스프레드(bp): 2023년 1월말 129→2월말 142→3월말 137→4월말 136→5월말 134

그림 Ⅱ-4. 회사채 신용스프레드[1]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



주: 1) 3년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그림 Ⅱ-5. 회사채[1] 순발행[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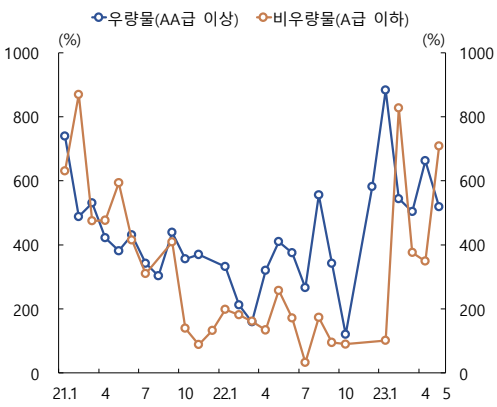


주: 1) 공모기준, 금융회사 발행분 제외
2)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편 상반기중 회사채 발행은 기업들이 신용경계감 완화 등으로 자금조달에 나서고 기관들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3월까지 상당폭 순발행되었다. 다만 3월 중순 이후 금리 불확실성 확대, 계절요인 등으로 순발행 규모가 축소된 이후 4월중에는 일부 기업의 대규모 만기도래 등으로, 5월에는 계절요인, 만기도래 규모 확대 등으로 상당폭 순상환되었다(그림 Ⅱ-5).

회사채 수요예측참여율은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우량물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3월 중순 이후 SVB·CS 사태의 영향으로 수요예측참여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일부 취약업종 기업을 제외하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양호한 투자수요를 나타내었다(그림 Ⅱ-6).

그림 Ⅱ-6. 회사채[1] 등급별 수요예측참여율[2]



주: 1) 공모기준, 금융회사 발행분 제외
2) 수요예측참여액/발행예정액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 주식시장

주가 큰 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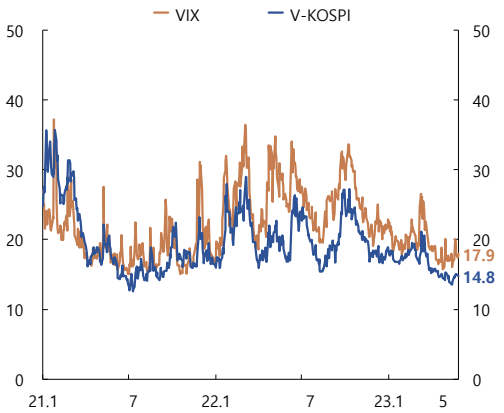
주가는 연초부터 주요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및 전기전자 업황 반등 기대 등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며 상승하였다. 3월 들어서는 미 고용지표 호조,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미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재차 부각된 데다 SVB·CS 사태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주요국의 신속한 정책 대응과 연준의 통화긴축 기대 완화, 국내 전기전자 업황 개선 기대 등으로 3월 중순 이후 큰 폭 반등하였다가 4월 말 이후 미국 지역은행 불안 및 부채한도 협상 지연 우려, 일부 과열 종목에 대한 경계감[7] 등으로 조정을 받았다. 이후 5월 하순에는 미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 강화,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다(그림 Ⅱ-7).

그림 Ⅱ-7. 코스피 및 글로벌 주가[1]

주: 1) 미국은 S&P500 지수,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은 MSCI 기준
자료: KOSCOM, Bloomberg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대가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3월 들어 글로벌 은행 불안 우려가 확산되면서 일시 상승하였다. 이후 주요국의 정책 대응 등으로 시장불안이 진정되면서 3월말 이후에는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그림 Ⅱ-8).

그림 Ⅱ-8. 주가 변동성 지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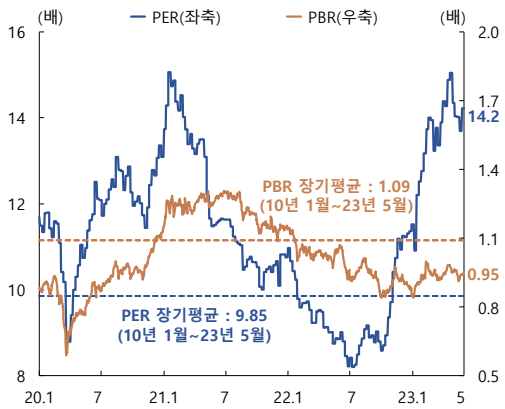
주: 1) S&P500 및 KOSPI200 지수의 옵션 가격으로부터 산출된 변동성지수
자료: KOSCOM, Bloomberg

7) 일부 증권사들이 2023년 1/4분기중 큰 폭 상승했던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 단기과열을 경고한 가운데 SG증권 창구를 통해 삼천리·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에 대한 대규모 매물 출회(4.24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급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시장 경계감이 강화되었다.

PER 및 PBR 상승

주가수익비율[8](PER)은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업황 반등 지연으로 예상이익이 낮아지는 가운데 주가가 큰 폭 상승함에 따라 5월말 기준 14.2배 수준까지 높아져 장기평균(9.85배, 2010년 이후)을 크게 상회하였다.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작년말 기준 0.85배에서 5월말 현재 0.95배로 상승하였다(그림 Ⅱ-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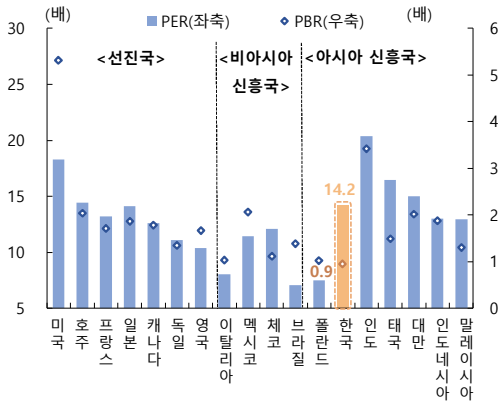
그림 Ⅱ-9. PER[1] 및 PBR[2]



주: 1)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2) 코스피 종목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 주식시장의 PER는 선진국 및 주요 신흥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PBR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그림 Ⅱ-10).

그림 Ⅱ-10. 주요국의 PER[1)2)] 및 PBR[1)]



주: 1) 2023년 5월 기준
2)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자료: Bloomberg, Refinitiv

한편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9]은 금년 들어 투자자들의 위험선호가 강화되면서 빠르게 낮아져 5월 기준 3.5%포인트로 장기평균(2010년 이후 7.52%포인트)을 큰 폭 하회하고 있다(그림 Ⅱ-11).

그림 Ⅱ-11.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1)]

주: 1) 수익주가비율(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의 역수) - 국고채(10년)수익률
자료: Bloomberg, Refinitiv

8) 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을 활용하였으며 동 지수는 MSCI지수 편입기업들의 현재 시가총액 합계를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순이익(국내외 증권회사 전망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9) 수익-주가 비율(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의 역수)과 국고채(10년)수익률 간의 차이로 산출한다. 무위험자산(국고채) 대비 주식의 초과수익률이 과거평균에 비해 낮아도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선호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 부동산시장

주택매매가격 하락세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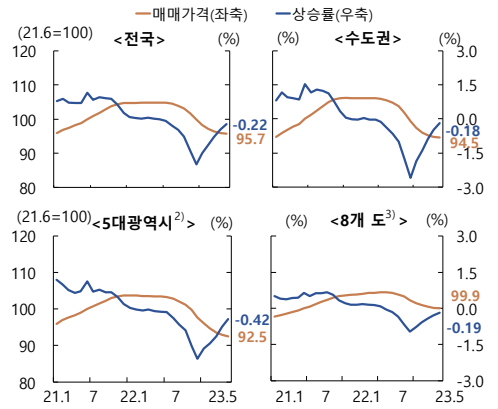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이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10] 및 가격 저점 인식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하여 5대 광역시와 8개 도 모두 하락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특히 수도권은 하락폭이 2022년 12월 전기대비 -2.60%에서 2023년 5월 -0.18%로 빠르게 축소되었다. 5대 광역시 역시 -2.05%에서 -0.42%로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8개 도 지역의 경우에도 -0.96%에서 -0.19%로 축소되었다(그림 Ⅱ-12).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가격소득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과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가격임대료비율(PRR, Price to Rent Ratio)은 모두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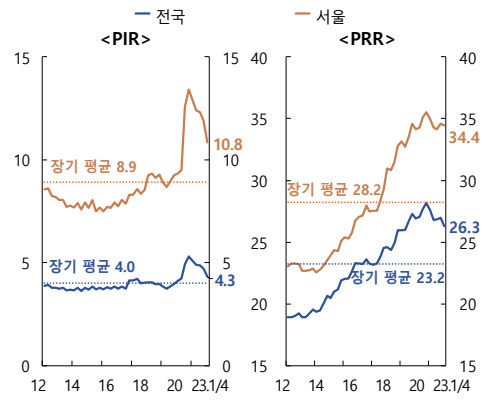
2023년 1/4분기중 가격소득비율(전국 기준)은 4.3으로 2022년 3/4분기(4.9) 대비 0.6 하락하였다. 가격임대료비율(전국)도 2021년 4/4분기 고점(28.2) 이후 하락세[11]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1/4분기중 가격임대료비율은 26.3으로 2022년 3/4분기 대비 0.5 하락하였다.(그림 Ⅱ-13).

그림 Ⅱ-12. 주택매매가격 추이 및 상승률[1]



주: 1)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기준, 전월대비
2)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및 울산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
자료: 한국부동산원

그림 Ⅱ-13. 가격소득비율 및 가격임대료비율



주: 1) 주택가격(3분위)/연간 가구소득(3분위)
2) 주택가격/연간 임대료
자료: 한국은행 시산, 한국부동산원

10) 2023년 1월 3일 정부는 규제지역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대출보증 기준 폐지 등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11) 2022년 중 PRR 하락은 전월세전환율 상승에 따른 임대료(추정) 하락폭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2022년 하반기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주택매매 거래량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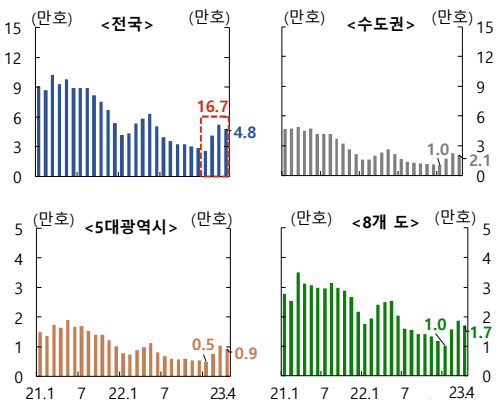
2023년 1~4월중 주택매매거래량은 16.7만호로 전년동기(19.7만호)에 비해 15.2% 감소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56.4%)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특히 2~4월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12] 등 정부 정책영향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13]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매매거래량이 1월중 1.0만건에 그쳤으나 4월에는 2.1만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5대 광역시는 같은 기간 0.5만건에서 0.9만건으로, 8개 도지역에서 1.0만건에서 1.7만건으로 증가하였다. 매수심리도 2월 이후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14](그림 Ⅱ-14).

전월세가격 하락세 완화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월세가격의 하락세가 완화되는 모습이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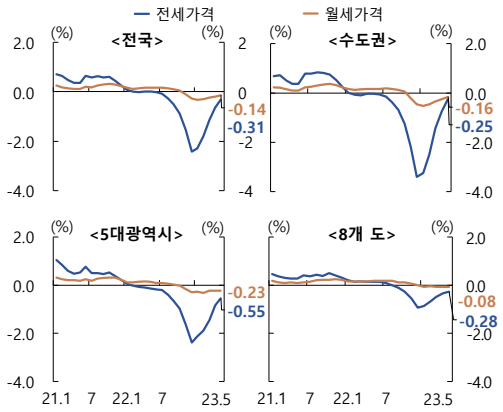
전세가격은 2022년 12월 전월대비 -2.4%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완화되면서 2023년 5월에는 전월대비 0.31% 하락하였다. 2022년 하반기 주택가격 급락과 입주물량 증가로 하락세가 심화되었던 전세가격은 2023년 들어 주택가격 하락폭이 완화되고 입주물량도 감소하면서 하락폭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16](그림 Ⅱ-15).

그림 Ⅱ-14. 월별 주택매매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Ⅱ-15. 주택전월세가격 상승률[1]



주: 1) 전월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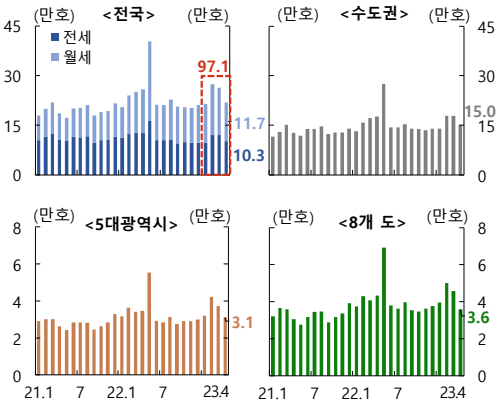
12)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으로 공급되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수요가 가계부채의 점진적 축소를 제약하면서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13) 주택매매거래량: 2022년 12월 2.9만호 → 2023년 1월 2.6만호 → 2월 4.1만호 → 3월 5.2만호 → 4월 4.8만호
14) 매수우위지수(KB국민은행): 2023년 1월 17.9 → 2월 21.1 → 3월 21.9 → 4월 22.3 → 5월 24.8
15) 전세가격상승률(전월대비): 2023년 1월 -2.29% → 2월 -1.80% → 3월 -1.13% → 4월 -0.63% → 5월 -0.31%
월세가격상승률(전월대비): -0.33% → -0.29% → -0.24% → -0.18% → -0.14%
16) 월평균 입주물량(만호): 2022년 상반기 2.4 → 2022년 하반기 3.1 → 2023년 1~5월 2.6

전·월세 거래량은 2023년 1~4월중 97.1만호로 전년동기(95.4만호) 대비 1.85% 증가하여 2022년 하반기(5.9%)보다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임차유형별로 보면 전세거래량이 44.2만호로 전년동기(49.0만호) 대비 9.8% 감소한 반면, 월세거래량은 53.0만호로 전년동기(46.4만호) 대비 14.2%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전월세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월중 54.5%로 전년동기(50.6%) 대비 3.9%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Ⅱ-16).

2023년중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17]은 36.2만호로 전년(33.0만호)에 비해 증가하면서 예년 수준(13~22년중 연평균 33.2만호)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3년중 아파트 분양물량은 23.6만호로 전년(36.8만호)보다 대폭(35.9%) 감소할 전망이다(그림 Ⅱ-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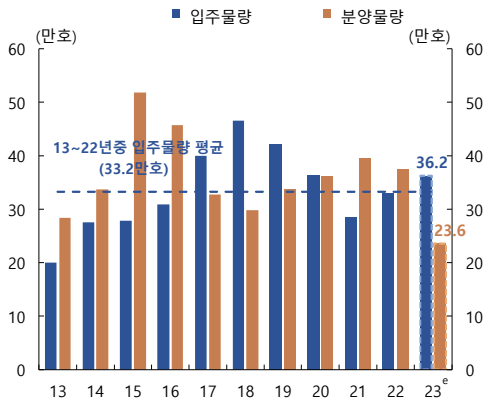
한편 미분양주택 물량은 2023년 4월말 기준 7.1만호[18](수도권 1.1만호, 비수도권 6.0만호)로 전년말(6.8만호)에 비해 4.7% 증가하였다[19].

그림 Ⅱ-16. 월별 주택전월세거래량[1)2)]



주: 1) 2021년 6월 이후 집계범위가 확정일자 신고자료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자료로 확대
2) 22.5월중에는 전월세신고 계도기간 만료로 일시적으로 신고건수가 증가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Ⅱ-17. 아파트 입주 및 분양 물량[1)]



주: 1) 2023년 6월 16일 기준(단, 23년은 월별계획물량 합산 기준)
자료: 부동산R114

17) 지역별로 보면 2023년중 수도권(17.9만호 → 18.7만호)과 비수도권(15.1만호 → 17.5만호)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8) 미분양주택 물량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2001년)한 이래 2021년 9월 최저수준(1.4만호)을 기록하였다가, 2021년 10월 이후 증가하고 있다. (21년말 1.8만호 → 22년말 6.8만호 → 23.4월말 7.1만호)
19) 미분양주택 관련 자세한 내용은 <현안 1>「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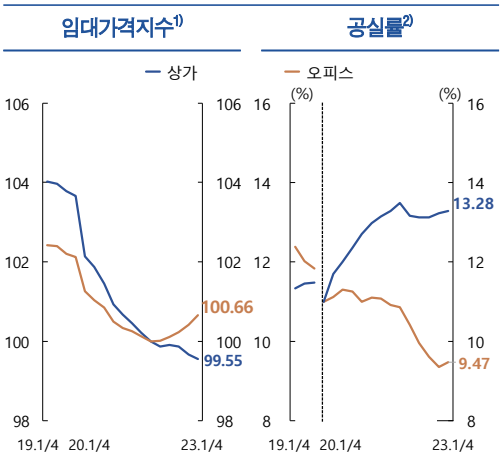
오피스 임대가격 상승 지속, 상가는 하락

2023년 1/4분기말 오피스의 임대가격은 신규공급 제한, 주요 업무지구에 대한 견고한 임차수요 등으로 2022년 3/4분기(100.23) 대비 0.43% 상승(100.66)하였으나, 상가 임대가격은 내수회복 지연, 소비심리 위축[20] 등으로 2022년 3/4분기(99.87) 대비 0.32% 하락(99.55)하였다. 공실률의 경우 2023년 1/4분기말 기준 오피스 9.47%로 2022년 3/4분기(9.61%) 대비 소폭(0.13%) 하락한 반면, 상가는 13.28%로 2022년 3/4분기(13.12%) 대비 0.16% 상승하였다(그림 Ⅱ-18).

자본수익률 오피스·상가 모두 급격한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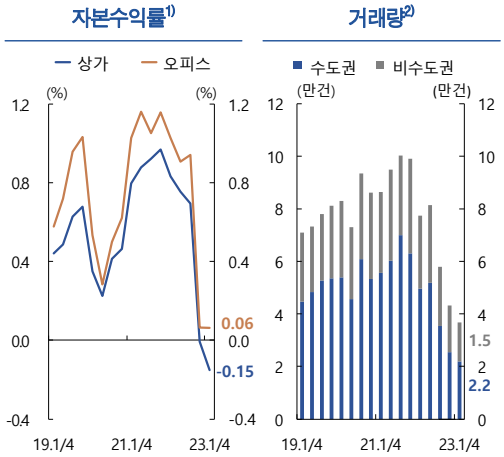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은 오피스와 상가 모두 급격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1/4분기중 오피스의 자본수익률은 0.06%로 2022년 3/4분기(0.94%) 대비 0.88%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상가의 자본수익률은 -0.15%로 2022년 3/4분기(0.70%) 대비 0.85%포인트 하락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상업용부동산의 거래량은 2023년 1/4분기중 3.7만건으로 전년동기(7.7만건) 대비 큰 폭(52.7%) 감소하였다(그림 Ⅱ-19).

그림 Ⅱ-18.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및 공실률



주: 1) 2021년 4/4분기=100. 상가는 중대형 기준
2) 2020년 1/4분기 표본개편으로 시계열 단절. 상가는 중대형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그림 Ⅱ-19.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 및 거래량



주: 1) 토지와 건물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 금분기 자산가치의 전분기 대비 상승률로, (현재 자산가치 - 전분기 자산가치)/ 현재 자산가치로 정의. 상가는 중대형 기준
2) 상업업무용(오피스텔 포함) 기준. 매매 목적 이외 분양, 증여, 교환 등도 포함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20) 소비자심리지수는 22.9월 91.6 → 22.12월 90.2 → 23.3월 92.0로 100을 하회(비관적)하고 있다.

Ⅲ. 금융기관

일반은행[1]은 자산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자산건전성이 저하되었으나,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산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자산건전성도 저하되었다. 다만 수익성은 업권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가 확대되면서 금융업권 간 부실전염 리스크도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Ⅲ-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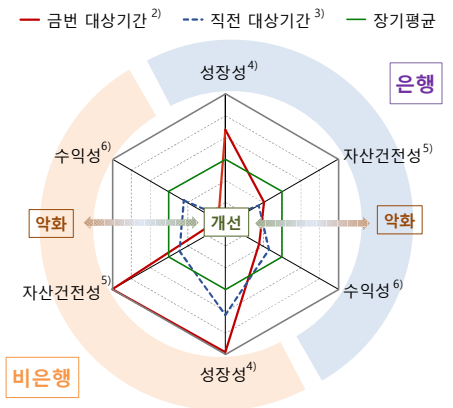
1. 은행

자산 증가세 둔화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2023년 1/4분기말 2,32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하였으나 2022년 3/4분기(15.0%)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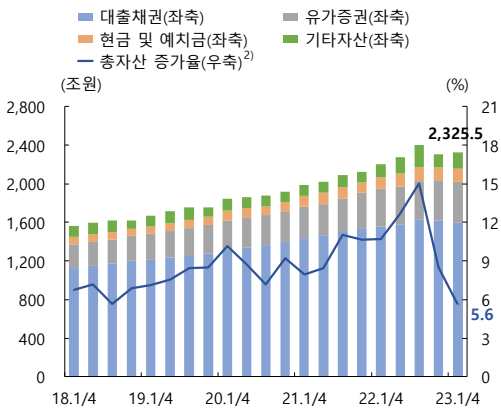
자산항목별로 살펴보면, 대출채권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2.6%에 그쳐 2022년 3/4분기(8.1%) 대비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대비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 지속의 영향으로 차주 부담이 가중되면서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은 각각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2]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유가증권(8.1%), 현금 및 예치금(12.8%)도 작년 3/4분기(각각 17.4%, 24.7%) 대비 증가율이 낮아졌다(그림 Ⅲ-2).

그림 Ⅲ-1. 금융기관 건전성 상황 변화 지도[1]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1/4분기말
3) 2022년 3/4분기말(수익성은 2022년 1/4분기말)
4) 총자산증가율
5) 고정이하여신비율
6) 총자산순이익률(ROA)
자료: 한국은행 시산

그림 Ⅲ-2. 일반은행 총자산 규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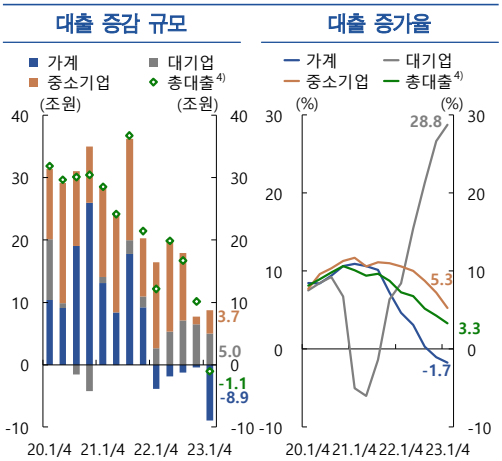
주: 1) 은행계정 기말 잔액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1) 금융안정보고서의 은행부문은 일반은행(시중·지방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영업모델이 상이한 특수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및 수협은행)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및 토스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된다.
2)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4분기중에는 증가 전환이 예상된다.

차주별 대출채권(원화대출금 기준)을 보면 가계대출이 2023년 1/4분기중 전기대비 8.9조원 감소한 가운데 기업대출 증가 규모도 8.7조원에 그쳐, 금년 1/4분기말 일반은행의 전년동기대비 총대출 증가율(3.3%)이 2013년 3/4분기(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가계대출은 전년동기대비 높아진 대출금리[3], 전세자금 수요 감소[4] 등의 영향으로 1999년 1/4분기(-34.5%) 이후 가장 크게 감소(-1.7%)하였다.

한편, 대기업대출 증가율은 가계대출 축소에 대응한 대기업 고객 유치 노력, 회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 악화[5] 등의 영향으로 금년 1/4분기 28.8%로 확대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높은 대출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리스크관리를 위한 보수적 대출 취급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가 둔화(22.3/4분기 8.8% → 23.1/4분기 5.3%)되었다(그림 Ⅲ-3).

그림 Ⅲ-3. 일반은행 대출[1] 증감[2] 규모 및 대출 증가율[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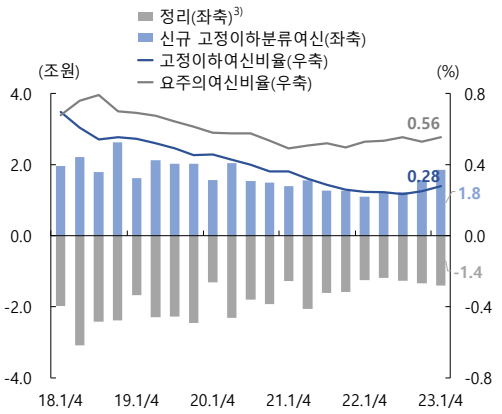
주: 1)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기준
2) 전기대비 3) 전년동기대비
4) 가계, 기업,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을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3) 2023년 1/4분기 예금은행의 분기평균 잔액기준 가계대출금리는 4.93%로 전년동기(3.17%)대비 1.76%포인트 상승하였다.
4) 2023년 1/4분기 전세자금대출은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하면서 집계를 시작한 2020년 1/4분기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5) 2023년 1~3월중 주식 및 회사채를 통한 대기업 자금 조달(금융채, ABS 제외)은 20.5조원으로 전년동기(24.7조원) 대비 17.0% 감소하였다.

자산건전성 저하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1/4분기말 0.28%로 2022년 3/4분기(0.23%) 대비 0.05%포인트 상승하였다[6](그림 Ⅲ-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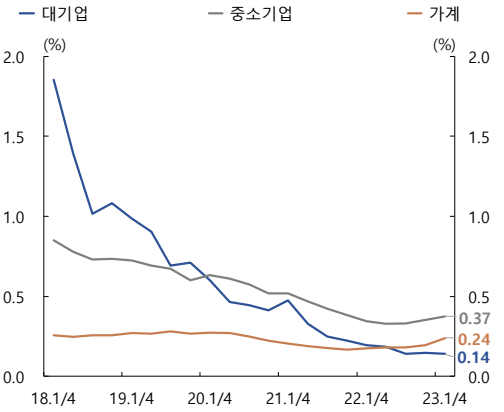
그림 Ⅲ-4. 부실채권 발생정리 실적[1] 및 고정이하여신비율[2]



주: 1) 기간중 기준 2) 기말 기준
3) 회수, 대손상각, 매각, 건전성재분류, 채권재조정 등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차주별로 살펴보면 가계 및 중소기업 여신은 2023년 1/4분기말 각각 0.24%, 0.37%로 2022년 3/4분기말 대비 각각 0.04%포인트, 0.06%포인트 상승하였으나, 대기업여신은 0.14%를 기록하여 2022년 3/4분기말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Ⅲ-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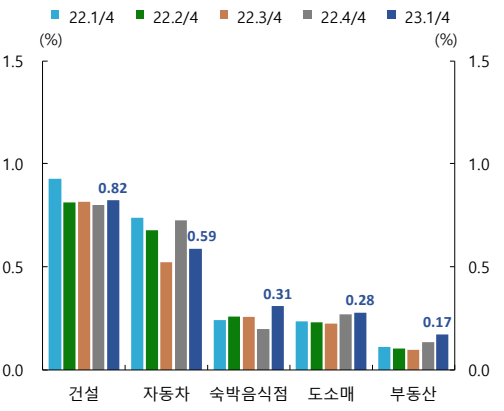
그림 Ⅲ-5. 일반은행 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기업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22년 3/4분기 0.52% → 23년 1/4분기 0.59%), 부동산(0.10% → 0.17%), 도소매(0.22 → 0.28%), 숙박음식점(0.26% → 0.31%)은 상승하였고, 건설(0.82% → 0.82%)은 지난 3/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Ⅲ-6).

그림 Ⅲ-6. 일반은행 주요 업종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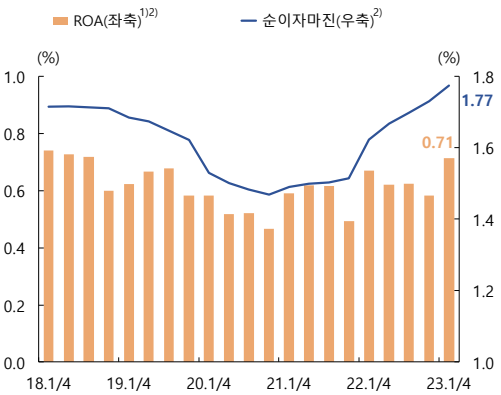
6) 한편, 2023년 1/4분기말 요주의여신비율은 2022년 3/4분기 대비 0.01%포인트(0.55% → 0.56%) 상승하였다. 차주별 요주의여신비율을 보면, 가계는 2022년 3/4분기 대비 0.07%포인트(0.29% → 0.36%) 상승한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0.16%포인트(1.30% → 1.14%), 0.01%포인트(0.58% → 0.57%) 하락하였다.

수익성 양호

일반은행의 수익성은 전년동기에 비해 개선되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23년 1/4분기 0.71%(연율환산)로 2018년 3/4분기(0.7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순이자마진(NIM)은 예대금리차 확대[7]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1.62%)대비 상승한 1.77%로 2014년 4/4분기(1.8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그림 Ⅲ-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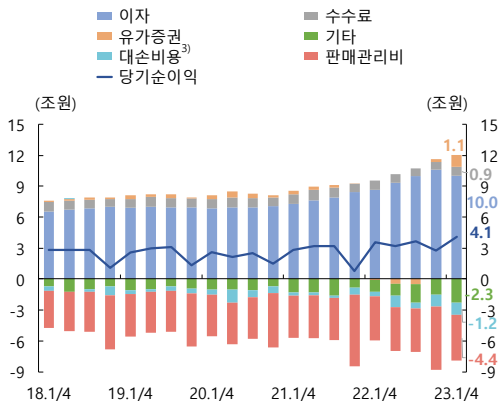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 1/4분기중 4.1조원으로 전년동기(3.6조원)대비 0.5조원 증가하였다. 순이익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대출자산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예대금리차 확대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전년동기(8.7조원)대비 1.3조원 증가하였다. 유가증권관련이익은 매매이익을 중심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조원 늘면서 당기순이익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8]을 적립하면서 대손비용은 1.2조원으로 전년동기(0.4조원)대비 0.8조원 증가하였다(그림 Ⅲ-8).

그림 Ⅲ-7. 일반은행 수익성



주: 1) 대손준비금 전입전 금액 기준
2)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Ⅲ-8. 일반은행 당기순이익 구성요소[1)2)]



주: 1) 대손준비금 전입전 금액 기준 2) 기간중 기준
3) 대손상각비, 충당금 순전입액 및 대출채권 매매손익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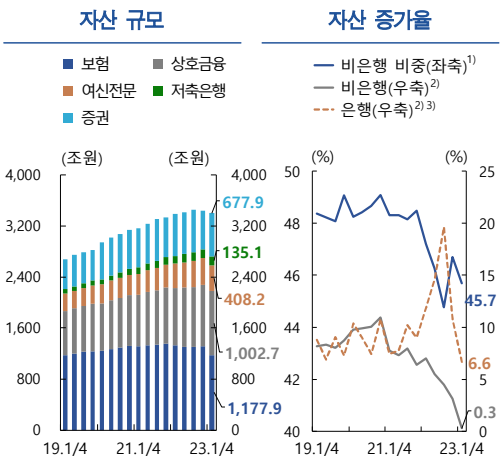
7) 예금은행의 분기평균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023년 1/4분기 2.59%포인트로 전년동기(2.28%포인트) 대비 확대되었다.
8) 2023년 1/4분기말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224.3%로 전년동기(199.7%) 대비 24.6%포인트 상승하였다.

2. 비은행금융기관

자산 증가세 둔화

비은행금융기관의 총자산은 2023년 1/4분기말 3,401.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3% 증가에 그쳐 성장세가 가파르게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9] 전체 총자산(7,446.7조원)에서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4분기말 45.7%로 하락하였다[10](그림 Ⅲ-9).

그림 Ⅲ-9.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규모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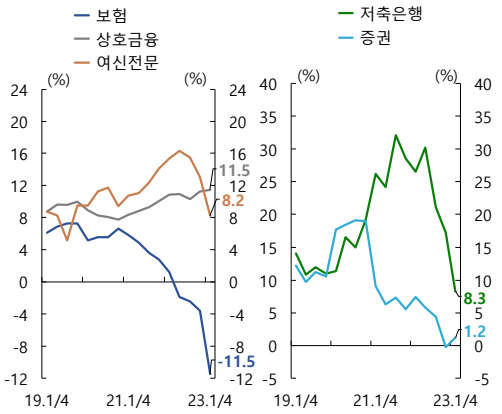
주: 1)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 (은행+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
2) 전년동기대비
3) 일반은행 외에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업권별로는 보험회사 총자산이 새로운 보험회계 기준 적용의 영향[11]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감소하였으며, 증권회사의 경우 주식투자 관련 투자자예치금 감소[12] 등으로 총자산이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조달금리 상승 및 자산건전성 저하 등에 따른 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인하여 전년동기대비 8.3% 늘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캐피탈사의 대출 증가세 둔화[13] 등에 기인하여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8.2%로 하락하였다.

반면 상호금융조합 총자산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하여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그림 Ⅲ-10).

9)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을 포괄하며, 은행은 일반은행 외에 특수은행과 외은지점을 포함한다.
10) 2022년 3/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시적으로 큰 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은행이 LCR 규제비율 정상화(당초 2022년말까지 92.5%로 상승 예정이었으나 2022년 10월말 정상화를 6개월간 유예)를 앞두고 은행채 발행을 큰 폭 확대한 데 기인한다.
11) 2023년부터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기준이 기존 IAS39에서 IFRS9으로 대체되면서 기존에 원가평가 대상이었던 금융자산의 일부가 시가평가 대상으로 변경되어 그간의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보험계약 관련 회계기준이 기존 IFRS4에서 IFRS17로 대체되면서 기존 자산항목인 미상각신계약비(2022년말 기준 총자산의 1.0% 차지)가 자산항목에서 제외되고, 보험계약대출(총자산의 4.7% 차지)이 보험부채 차감항목으로 변경되어 장부상 부채가 감소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4>「신 회계기준 도입이 보험회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을 참조.
12)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은 2022년중 금리상승, 경기둔화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들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2023년 1/4분기말 -20.0%)이다.
13) 캐피탈사는 그동안 할부리스 영역에서의 경쟁 심화 등으로 가계 및 기업대출을 확대(2018~22년중 연평균 증가율 각각 3.4%, 17.1%)하며 높은 자산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2022년 들어 조달금리 상승, 하반기 이후 부동산경기 둔화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대출 취급을 자제하면서 2023년 1/4분기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감소(-12.2%)하고 기업대출 증가율은 큰 폭 둔화(4.2%)되었다.

그림 Ⅲ-10. 비은행금융기관 업권별 총자산증가율[1)2)]



주: 1) 전년동기대비 2) 증권회사는 미수금 제외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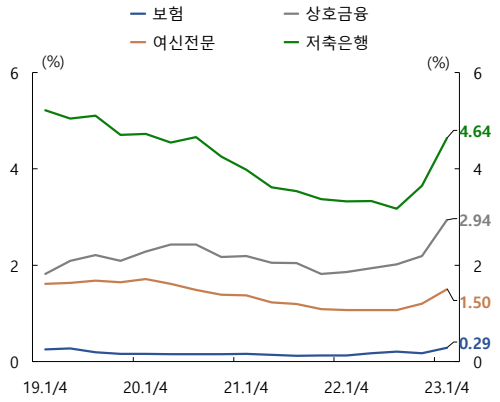
자산건전성 저하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모든 업권에서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1/4분기말 4.64%로 2022년 3/4분기 이후 대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고정이하여신금액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22년 3/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 전환하였다.[14)]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94%로 상승하였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1.50%로 2022년 3/4분기말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2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그림 Ⅲ-11).

이와 같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된 데는 그간의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부동산경기 부진에 따른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의 연체율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1. 비은행금융기관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4) 저축은행의 2023년 1/4분기말 총여신은 2022년 3/4분기 대비 4.1% 감소한 반면, 고정이하여신잔액은 40.2% 증가하였다. 고정이하여신 증가액을 차주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이 13.3%, 기업대출이 70.5% 늘어나 기업대출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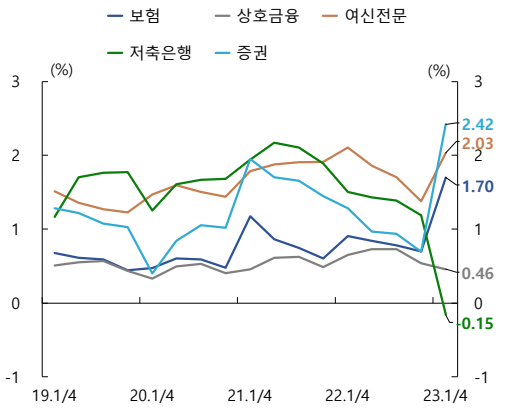
수익성 업권별로 상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는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전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의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2023년 1/4분기중 보험회사 총자산순이익률(ROA)은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기준 변경[15], IFRS9 도입으로 늘어난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평가이익 확대 등의 영향으로 1.70%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0.80%포인트 상승하였다. 증권회사 총자산순이익률은 유가증권 평가이익 및 배당금 수익[16]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13%포인트 상승한 2.42%를 기록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총자산순이익률은 2.03%로 이자비용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신용카드회사에서 대손준비금 환입이 발생[17]하면서 전년동기(2.11%)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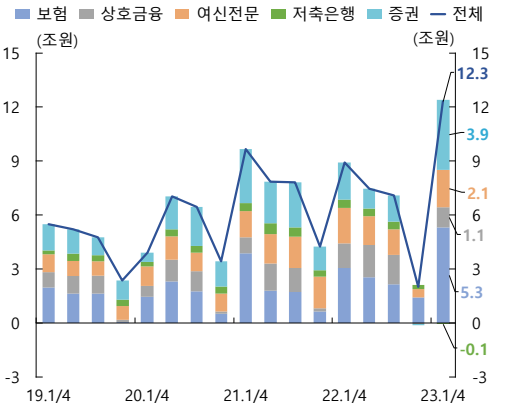
반면 상호금융조합 총자산순이익률은 2023년 1/4분기중 0.46%로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19%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축소,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18] 등의 영향으로 총자산순이익률(-0.15%)이 2014년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그림 Ⅲ-12, 그림 Ⅲ-13).

그림 Ⅲ-12.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순이익률(ROA)[1]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Ⅲ-13. 비은행금융기관 당기순이익[1]



주: 1) 분기중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5)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기존 IFRS4에서 IFRS17로 변경되면서 보험수익 인식 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되고 신계약비의 상각기간이 기존 최대 7년에서 전체 보험계약기간으로 변경되었다.
16) 2023년 1/4분기중 일부 증권회사에서 일회적으로 대규모의 배당금 수익(1.7조원)이 발생하였다
17) 신용카드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산정시 적용되는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이 은행, 보험 등 타 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기존 50% → 40%)되면서 감독규정 기준 충당금 필요 적립 규모가 감소해 대손준비금 환입이 발생하였다.
18)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23년 1/4분기말 기준 5.06%로 전년동기대비 2.48%포인트 증가하였다. 차주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5.58%로 전년동기대비 1.49%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5.07%로 전년동기대비 3.21%포인트 증가하여 기업대출의 연체율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손비용은 2023년 1/4분기중 1.0조원으로 전년동기(0.7조원) 대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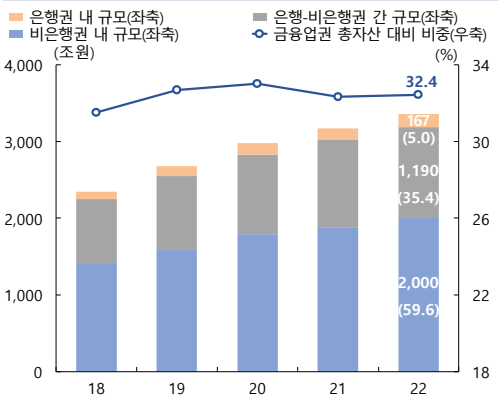
3. 상호연계성

상호거래 증가세 확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19]는 2022년말 3,35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 늘어났으나, 증가율은 소폭 하락하였다.[20] 이는 지난해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따라 은행 및 외은지점의 파생상품 거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등으로 보험 및 증권사 등의 채권운용 규모가 감소[21]한 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 금융부문의 총자산(1경 347조원, 자금순환통계 기준)에서 상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말 32.4%로 2021년말(32.3%)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은행[22] 간 거래(167조원)는 일반은행의 특수은행채권 매입량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비은행권 내 거래(2,000조원)는 보험회사의 투자펀드 운용액 및 신탁의 증권사 운용액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하였다. 은행·비은행 간 상호거래(1,190조원)는 서민금융기관의 對은행 운용금액 증가[23] 등으로 3.8% 증가하였다(그림Ⅲ-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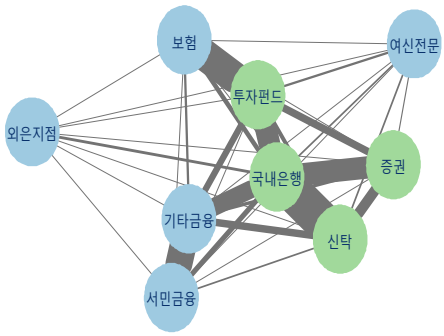
그림 Ⅲ-14. 금융기관·업권 간 상호거래 현황[1)2)]



주: 1) 상호거래 규모는 자금순환통계 기말 기준
2) ( ) 내는 전체 상호거래 규모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금융업권별로 보면 국내은행, 증권, 신탁 및 투자펀드가 업권간 상호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금융업권별 상호거래 규모는 은행·신탁 간 거래(270.7조원), 보험·투자펀드(241.7조원), 증권·은행(207.6조원) 등의 순으로 많다(그림 Ⅲ-15, 표 Ⅲ-1).

그림 Ⅲ-15.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 구조[1)2)3)]



주: 1) ●은 상호거래(업권간) 규모 기준 상위 4개 업권
2)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업권 간 상호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선 굵기가 크게 나타남
3) 2022년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19) 자금순환통계의 금융자산부채 잔액표, 현금 및 예금 명세서, 차입금 명세서, 유가증권 보유명세서 등 주요 조사표를 활용하여 예금, 대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 48개 금융상품, 34개 금융업권 및 9개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2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금융안정 현안 분석>「Ⅲ. 은행시스템 상호연계성 분석 및 횡단면 시스템 리스크 측정」을 참고.

20)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20년말 11.2% → 2021년말 6.5% → 2022년말 5.8%이다.

21) 2021년 및 2022년중 채권운용 증감 규모는 보험회사 +1.5조원 → -15.5조원, 증권회사 +6.0조원 → -15.2조원이다.

22)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포함하는 국내은행 기준이며 외은지점은 비은행권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23) 서민금융기관의 對은행 운용 규모는 2021년말 62.4조원 → 2022년말 74.1조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Ⅲ-1. 금융업권 간 업권별 상호거래 규모

(조원)

업권	은행	외은지점	신탁	투자펀드	보험	증권	기타[2]
은행	167.5	44.7	257.9	130.6	81.5	159.4	188.2
외은지점	29.8	36.3	6.7	7.3	4.4	11.9	8.8
신탁	12.8	5.3	60.4	15.7	19.0	18.9	86.8
투자펀드	73.0	1.7	70.2	43.1	235.3	60.1	70.3
보험	13.2	4.8	6.7	6.4	19.4	5.5	10.9
증권	48.2	16.2	123.5	59.2	25.6	109.7	42.5
기타	150.5	11.8	142.5	121.4	83.8	98.9	349.0

주: 1) 행 업권은 열 업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열 업권은 행 업권을 통한 자금운용을 의미
2) 여신전문금융회사, 서민금융기관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업권 간의 상품별 상호거래 현황을 보면, 주로 파생 및 주식 등의 상호거래가 증가하였다. 특히 외은지점 및 은행의 외환스왑거래 증가[24] 등으로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대폭 증가(60.1조원 → 131.0조원)하였다(표 Ⅲ-2).

표 Ⅲ-2. 금융업권 간 상품별 상호거래 규모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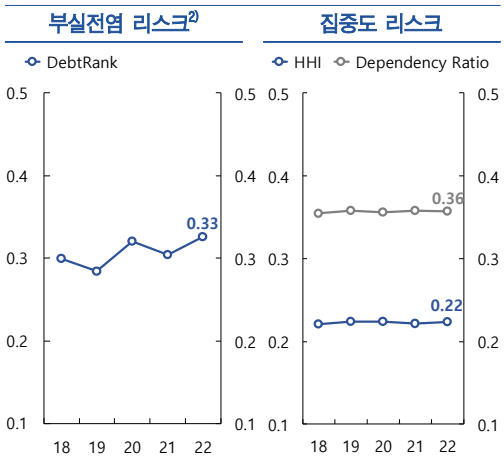
상품	2021년		2022년		B-A
	규모(A)	비중	규모(B)	비중	
예금	778.1	24.5	803.0	23.9	24.9
채권	716.3	22.6	709.6	21.1	-6.7
주식[1]	657.1	20.7	706.0	21.0	48.9
대출	153.6	4.8	195.4	5.8	41.8
RP	172.8	5.4	178.4	5.3	5.6
파생	60.1	1.9	131.0	3.9	70.9

주: 1) 주식에는 투자펀드지분,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포함
자료: 한국은행

부실전염 리스크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

금융업권간 부실전염 리스크 지표인 DebtRank[25]는 외은지점의 외환스왑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한편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에서 집중도 리스크를 나타내는 HHI지수[26] 및 단일 거래상대방 의존율(Dependency Ratio)[27]은 전년동기와 대체로 비슷하였다(그림 Ⅲ-16).

그림 Ⅲ-16.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 관련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1]



주: 1) 기말 기준
2) 특정 업권의 도산에 따른 손실 합계가 전체 금융권 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으로 숫자가 클수록 부실전염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24) 22년말 예금취급기관의 파생상품 잔액은 195조원으로 21년말(81조원) 대비 2.4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환율 급등(21년말 1185원/달러 → 22년말 1267원/달러) 및 시장금리 급등(국고채 3년물 기준 21년말 1.80% → 22년말 3.73%)으로 스왑 수요가 증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25) 특정 업권의 도산에 따른 충격이 거래상대방에게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손실 합계가 전체 금융권 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업권별로 계산하고 이를 단순 평균한 값이다. 예컨대, DebtRank 0.05는 특정 업권의 도산에 따른 상호거래 관련 손실이 평균적으로 업권 전체 운용자산 대비 5%의 손실을 초래함을 의미한다(Battiston et al., "Debtrank: Too Central to Fail? Financial Networks, the Fed and Systemic Risk", 2012).

26) 각 업권단위로 여타 업권과의 거래비중 제곱 합을 산출한 후 가중평균한 값으로,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한다.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비중과 가중치는 자금운용 거래기준으로 산출하였다.

27) 각 업권단위로 거래 규모가 가장 큰 업권과의 거래비중을 산출한 후 가중평균한 값으로,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한다.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비중과 가중치는 자금운용 거래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참고 3.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현황 평가 및 시사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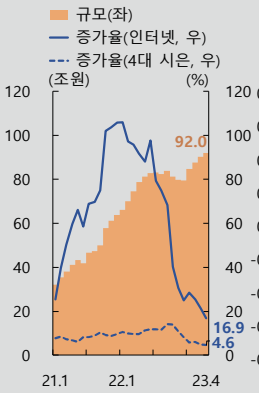
국내 인터넷전문은행[2]은 2017년 출범 이후 고객 수가 560만명(17년말)에서 2022년말 3,430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은 비대면채널의 편의성 및 비용 절감에 따른 금리경쟁력을 바탕으로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에 기여하였으나,[3]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 파산 사태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현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전반적인 경영 현황과 자금 조달·운용 상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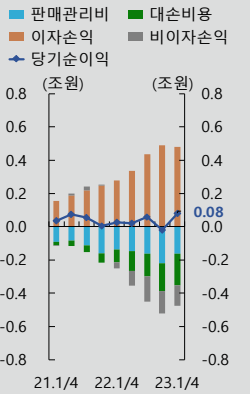
2023년 4월말 인터넷전문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92.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하였다. 2021년 토스뱅크 출범 영향이 줄어들면서 자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여타 4대 시중은행(4.6%)보다 높은 수준이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대출이 총자산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4]

수익성 측면을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예대마진[5]이 확대되면서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영업 초기의 IT기술투자 비용, 대손비용 및 유가증권 관련 손실, 다변화되지 않은 수익기반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규모(23년 1/4분기중 800억원)는 여전히 낮은 모습이다. 이에 따라 총자산순이익률(23년 1/4분기 0.51%)도 여타 시중은행(0.74%)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총자산 규모 및 증가율[1]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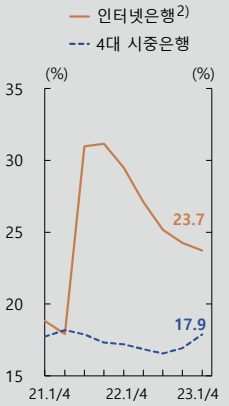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양호한 손실흡수 및 유동성 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다.[6] 2023년 3월말 인터넷전문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3.7%로 여타 4대 시중은행(17.9%) 및 최저규제(10.5%) 수준을 큰 폭 상회하고 있다. 또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각각 563.7% 및 186.5%로 규제수준(LCR, 22년 10월~23년 6월 92.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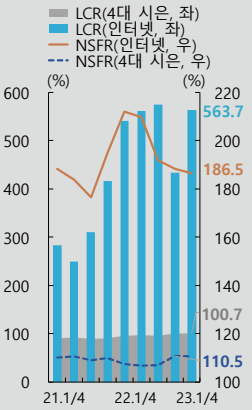
---

1) 본고는 김자혜·홍준의·박서정(은행리스크팀)·임영주(인터넷전문은행팀)가 작성, 이종한(금융리스크분석부장)·박장호(은행리스크팀장)·이장욱(인터넷전문은행팀장)이 검토하였다.
2) 2017년에는 케이뱅크(4월)와 카카오뱅크(7월)가, 2021년에는 토스뱅크(10월)가 은행업 신규 인가를 받고 출범하였다. 본고는 인터넷전문은행 전체 합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계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였으므로, 분석결과가 개별은행 상황과는 상이할 수 있다.
3)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효과 및 정책과제」(김미루·오윤해·임상빈, 2021)를 참고하길 바란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여타 시중은행의 경쟁자가 되기에는 아직 영업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경쟁 촉진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금융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2022).
4) 유가증권 증가율이 2022년 6월말 311.5%(전년동기대비)에서 2023년 4월말 6.1%로 크게 하락한 가운데, 원화대출금은 같은 기간 동안 40% 안팎의 증가율을 지속하였다.
5) 순이자마진(NIM)은 2023년 3월말 2.29%로 전년동기대비 0.65%포인트 상승하였다.
6) 이는 소매예금을 통한 조달과 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다.

자기자본비율[1]



유동성 규제비율[1]



주: 1) 기말 기준(LCR은 평잔 기준)
2) 21년중 신규 은행 출범, 기존 은행의 유상증자 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이 큰 폭 상승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금 조달·운용 상황 점검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구조를 보면,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 조달 측면에서는 예금 비중이, 운용 측면에서는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 조달·운용 구조를 중심으로 수신예금의 안정성과 대출, 유가증권 등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점검하였다.

자금 조달·운용 구조[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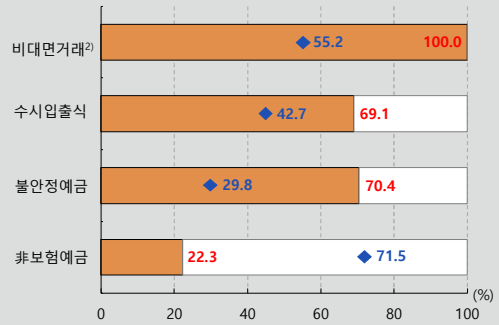
자산			부채 및 자본		
현금 및 예치금	6.9	(5.8)	수시입출식예금	59.6	(28.0)
유가증권	32.6	(18.1)	기타 저축성예금	27.7	(36.2)
대출금	55.9	(62.6)	시장성수신	1.3	(6.6)
유무형 고정자산	0.4	(0.8)	기타부채	1.6	(22.9)
기타자산	4.2	(12.7)	자본금	9.8	(6.3)

주: 1) 2023년 3월말 기준 총자산 대비 비중
2) ( ) 내는 4대 시중은행 비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수신예금의 안정성

인터넷전문은행은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 예금 조달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인터넷 기반 은행이라는 태생적 특성상 모든 예금이 비대면 예금인 가운데, 수시입출식예금 비중(총예금의 69.1%)과 바젤Ⅲ 기준 불안정(less stable)예금[7)] 비중(70.4%)이 여타 4대 시중은행(각각 42.7% 및 29.8%)에 비해 높아 수신예금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금이 소액·소매 예금으로 총예금의 77.7%가 예금보험 대상이고 非보험예금[8)] 비중은 22.3%에 불과하다는 점은 자금 안정성에 대한 예금자들의 우려를 상당폭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평가된다.

예금의 안정성 평가 지표[1)]



주: 1) 2023년 3월말 기준 총예금 대비 비중
(◆는 4대 시중은행의 값을 의미)
2)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CD/ATM 거래의 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예금보험공사

대출 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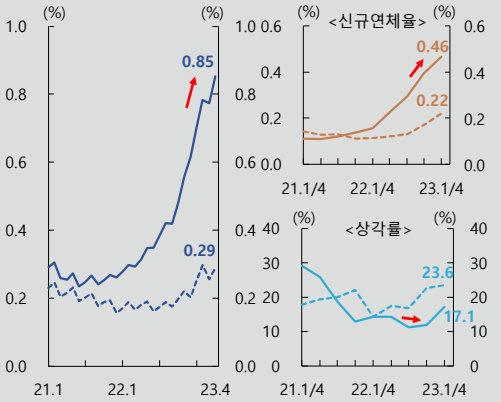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39.7%, 2023년 4월말)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출 연체율은 여타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높은 0.85%로 2022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7) LCR 규제 체계는 소매예금 중 전액 부보 대상이고 급여자동예치계좌 등 거래계좌에 연계되어 있거나, 예금주가 은행과 긴밀한 관계(established relationship)인 예금의 경우 안정예금으로 분류하여 5%의 이탈률을, 그 외 소매예금은 불안정예금으로 10%의 이탈률을 적용한다.
8) 부보 예금 중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및 비부보예금을 포함한다(이하는 2023년 3월말 非보험예금 규모, 예금보험공사).

부보예금		非부보예금(B)	총예금	非보험예금 (A + B)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A)			
61.4조원	17.4조원	0.2조원	78.9조원	17.6조원

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9], 신규 은행 영업 초기에 취급한 대출의 연체 발생,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이자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신규연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연체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증가 등으로 연체채권의 대손상각이 지연된 데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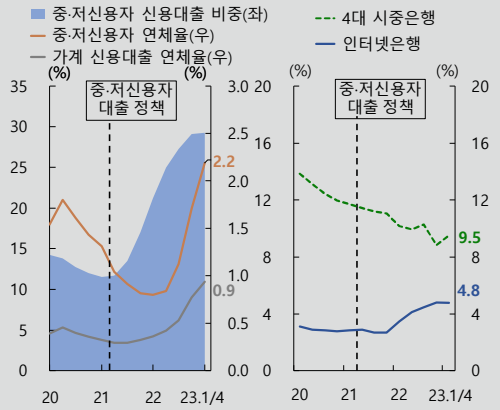
대출 연체율[1)2)] **신규연체율[1)3)] 및 상각률[1)4)]**



주: 1) 실선은 인터넷전문은행, 점선은 4대 시중은행을 의미
2)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3) 분기중 신규연체액/전기 원화대출 잔액
4) 분기중 상각액/전기 연체채권 잔액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개선 및 포용금융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대출 건전성에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가계 신용대출 기준) 대출 비중(96.1%)이 여타 4대 시중은행(80.2%)보다 높고 최근 중·저신용 및 저소득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이후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10]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1)] 대출 비중 및 연체율[2)] **저소득[3)] 차주 대출 비중**



주: 1) 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대출
2)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3)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은행연합회, 개별 은행 자료

유가증권 연계 금리위험[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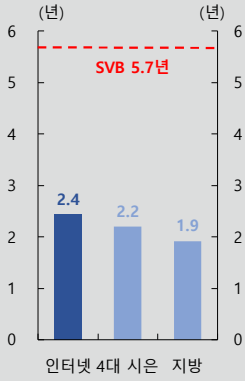
인터넷전문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비중(총자산의 32.6%, 4대 시중은행 18.1%)이 높은 상황에서, 수시입출식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채권으로 운용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시 순자산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12]

이러한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보유 유가증권의 평균 듀레이션[13]을 시산해 본 결과 2023년 4월말 2.4년으로 여타 시중은행(1.9~2.2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미국 SVB(5.7년)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금리 변동으로 인한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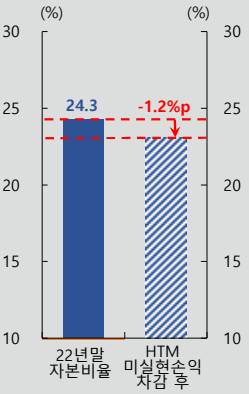
9)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계획」(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년 5월)에 따라 감독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2023년말 30%를 상회하도록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30%, 케이뱅크는 32%, 토스뱅크는 44%를 각각 목표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0) 다만 혁신 기반 포용금융 확대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인터넷전문은행 제도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연체율이 대략 3% 수준이다.
11) 본고에서의 금리리스크는 금리 변동으로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12) 최근 파산한 미국 SVB의 경우 저원가성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장기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과도한 만기변환(maturity transformation)으로 인해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 평가손실이 확대되었다.
13) 은행이 매입한 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으로 채권의 실효만기를 의미한다.

작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유가증권의 미실현손실은 총 자기자본의 8.7%이고, 만기보유증권(HTM, Held to Maturity)의 만기 이전 매도시 예상손실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자본비율은 1.2%포인트 하락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유가증권 평균 듀레이션[1]



채권평가손실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하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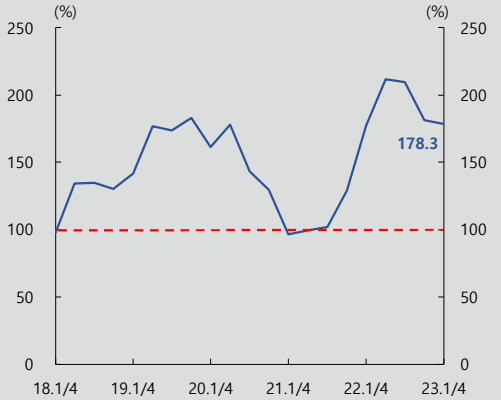


주: 1) 2023년 4월말 기준
2) 2022년중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만기보유증권(HTM)의 미실현손실을 반영한 자기자본비율 변동분(매도가능증권 미실현손실은 22년말 자기자본비율에 기 반영)
자료: 예탁결제원,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개별 은행 자료

예금 이탈 대응력

예금자들의 불안심리 확산으로 단기간에 예금이 급속히 이탈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유동성자산 처분을 통해 대응 가능한지 점검하기 위해 非보험예금 대비 고유동성자산[14] 비율을 산출하였다. 2023년 3월말 동 비율은 178.3%로 작년 하반기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하락에도 불구하고 10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非보험예금이 전액 이탈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은 고유동성자산을 활용하여 예금지급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非보험예금 대비 원화 고유동성자산[1] 비율



주: 1) 시가평가된 유가증권 잔액에 LCR 고유동성자산 인정비율(50~100%)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예금보험공사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현황 및 자금 조달·운용 상황을 점검한 결과, 미국 SVB 등과 같은 대규모 예금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가운데, 위기시 대응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술적으로 이탈이 용이한 비대면 예금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은 긴밀한 관계(established relationship)의 예금을 적극 확보[15]하는 등 수신예금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의 경우 자금 조달·운용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유동성 스트레스 상황의 상시적 점검이 긴요하다.

한편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에 따른 본연의 역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부실 확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연체채권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노력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14) LCR 분자의 구성 항목중 하나인 원화 고유동성자산(평잔)으로, 시가평가된 유가증권 잔액에 고유동성자산 인정비율(50~100%)을 적용하여 산출됨에 따라 작년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만기보유증권 포함)의 미실현손실이 반영되어 있다.
15) 예를 들어, 급여자동예치계좌나 신용/체크카드 사용 및 자동이체 등록 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 4.

신 회계기준 도입이 보험회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1)]

국내 보험업계는 2023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9, IFRS17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재무관리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2)]를 맞이하게 되었다. 신 회계기준은 당초 2021년 도입 예정[3)]이었으나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년 간 연기되었다가 금년부터 모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신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과 동 기준 도입이 보험회사 재무현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신 회계기준 주요 내용

먼저 신 회계기준 중 금융자산에 대한 기준서인 IFRS9은 금융자산의 범주를 조정하였으며 자산분류 및 가치측정을 개별 보험회사 결정(IAS39)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기준서인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특히 보험부채를 최선추정부채,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3개 요소[4)]로 구분하여, 미래 현금유출 및 수익성에 대한 정보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회계기준 주요 내용

구분		기존	신규
금융자산		IAS39	IFRS9
	분류기준	보유목적 및 의도	객관적 기준 (계약상 현금흐름 사업모형)
	범주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공정가치(FVPL)[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2)] -상각후 원가측정(AC)[3)]
	손상인식	발생손실 모형	기대신용손실 모형
보험계약		IFRS4	IFRS17
	부채평가	원가평가	시가평가
	부채 구성요소	책임준비금	최선추정부채,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수익인식	현금주의	발생주의

주: 1)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3) Amortized Cost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한국회계기준원

보험회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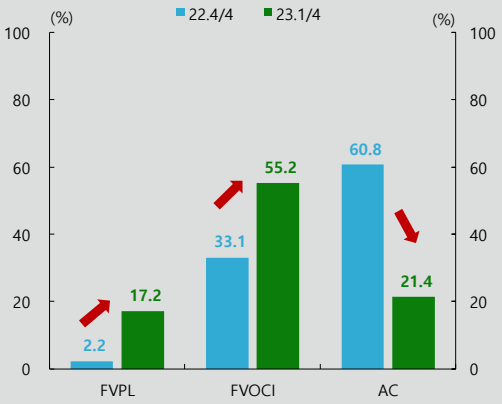
시가평가대상 자산 비중 대폭 확대

IFRS9 적용으로 보험회사 금융자산 중 상당 규모가 시가평가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2023년 1/4분기말 현재 2022년말 대비 보험회사의 금융자산 분류 비중 변화를 보면,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금융자산의 비중은 각각 15.0%포인트, 22.1%포인트 확대된 반면 시가로 평가하지 않는 상각후 원가측정(AC) 자산의 비중은 39.4%포인트 줄어들었다.[5)] 이러한 시가평가대상 자산 비중 확대에는 보험회사들

1) 본고는 이영선・최신・도지윤(금융시장연구팀)이 작성, 김명철(공개시장부장)・한민(금융시장연구팀장)이 검토하였다.
2) 신 회계기준에 따른 보험회사 총자산순이익률은 금년 1/4분기중 1.70%로 전년동기(0.91%) 대비 대폭 상승하였다.
3) IFRS9(제1109호 기준서)은 2014년에 발행된 금융상품 분류 및 측정에 관한 회계기준으로 2018년부터 국내에 적용되었으나 보험회사의 경우 IFRS17 도입시점인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면제되었다. 다만 보험사업이 비주류인 금융그룹에 속한 일부 보험회사는 2018년부터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IFRS9을 조기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왔다.
4) 최선추정부채는 보험계약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위험조정은 최선추정부채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적립하는 부채를 의미한다. 또한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으로부터 인식할 미래 이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5) 상각후 원가측정(AC) 자산의 80% 이상이 대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 주식 등 투자목적의 유가증권은 대부분 시가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1/4분기말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중 FVPL 비중은 22.2%, FVOCI는 69.6%로 나타났으며, AC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는 5.0%에 불과하였다. 한편, AC자산 중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1.8%로 나타났다.

이 일상적 유동성 관리 및 이자수취 등을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6]을 채택하고 있는 점과 지난해 보유자산 가치하락에 대응하여 채권을 재분류[7]한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IFRS9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 변화[1)2)]



주: 1) 특별계정자산 제외
2) 2022년 4/4분기 FVPL은 당기손익인식증권, FVOCI는 매도가능증권, AC는 만기보유증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의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수익증권의 당기손익 영향 확대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금융자산 비중이 수익증권[8]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자산의 가치변화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졌다. 보험회사는 그동안 수익증권을 주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량적으로 분류해 오면서 수익증권의 이자(배당)수익만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왔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IFRS9 하에서 수익증권 항목 중 배당이 발생하는 자산군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금융자산 범주에 편입[9]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증권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금년 1/4분기중 발생한 평가손익을 별도 공시한 보험회사를 살펴보면 금리하락 등에 힘입어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금융자산 가치가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기순이익 및 FVPL 평가손익 비교

(억원)

구분	22.1/4			23.1/4		
	A사	B사	C사	A사	B사	C사
당기순이익	3,570	196	263	7,948	1,007	1,054
(평가손익[1)])	5	-35	-18	1,841	1,553	1,764

주: 1) 1/4분기중 FVPL로 편입된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기준
자료: 각 사 분기보고서

부채의 시가평가로 자본 상황 개선

보험업권의 자본 상황은 자산만 시가평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IFRS17 기준에 따라 부채에도 시가평가가 적용되면서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듀레이션 갭(자산-부채)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부채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2023년 1/4분기 중 부채 감소에 따른 이익인 보험계약 금융손익 규모는 62.9조원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금융자산의 손실 규모(-33.8조원)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이 큰 폭 증가(+69.6조원)하면서 지난해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손실 확대로 증대되었던 자본관리 부담도 일부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10]

6) IFRS9에서는 ① 일상적 유동성 수요 관리, ② 특정이자수익 유지, ③ 금융자산과 자금조달을 위한 부채의 만기 일치 등을 추구하는 사업모형을 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상품(舊 매도가능증권) 보유 사업모형으로 제시한다.

7)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보유채권 평가손실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본관리 이슈가 부각되자, 국내 보험업권은 이에 대응하여 사상 최고 수준인 163조원 규모의 보유채권을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였다.

8) 수익증권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투자기관인 신탁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주식, 파생상품, 채권, 콜, CP, RP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해주는 권리증서를 의미하며 통상 배당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9) IFRS9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각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채무상품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FVPL)로 분류한다.

10) 2021년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회사 보유 채권의 대규모 평가손실로 RBC비율이 큰 폭 하락한 바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완화(당초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던 LAT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시가평가 보험부채)의 40%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 22.6월)로 자본관리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 하락세가 2022년말까지 지속되었다.

보험회사 자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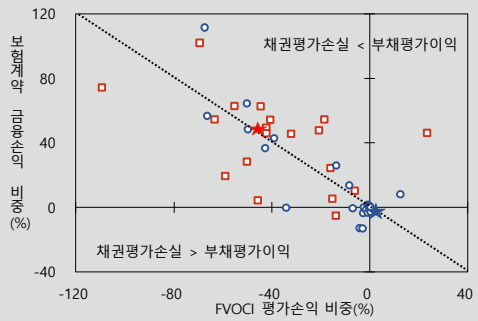
(조원)

구분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2.12	23.3	22.12	23.3	22.12	23.3
자본총계	88.8	158.5	50.0	100.6	38.8	57.9
기타포괄손익 누계	-18.9	32.3	-12.9	28.4	-6.0	3.9
(FVOCI 평가손익)	-15.6	-33.8	-10.1	-20.4	-5.5	-13.4
(보험계약 금융손익)	-	62.9	-	49.0	-	13.9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다만 이를 업권별, 그리고 개별 보험회사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보유 금융자산과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라 신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손해보험업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13.4조원)과 보험계약 금융손익(+13.9조원)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개별 회사별로도 45도 선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업권의 경우 업권 전체로는 부채 감소에 따른 이익이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개별 회사별로는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 관리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 자본총계 대비 보험계약 금융손익 및 FVOCI 평가손익 비중 분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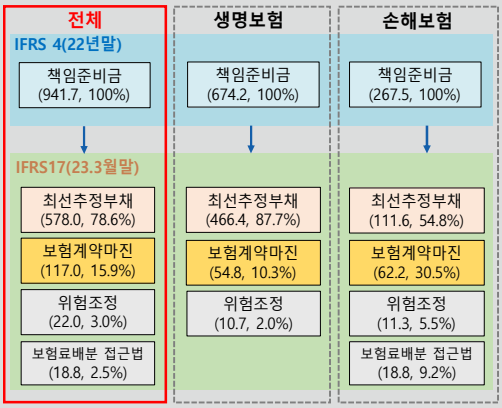


주: 1) 파란원은 손보사, 빨간네모는 생보사, 별표는 각 업권별 중위값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보험계약마진은 업권별로 크게 차별화

IFRS17 적용으로 처음 측정되는 보험계약마진[11)]은 계약시점에는 보험부채로 계상된 후 점진적으로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인식되며, 보험계약 보유 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23년 1/4분기말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마진은 117조원으로 전체 보험계약부채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마진 비중이 30.5%로 생명보험회사(10.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계약 기간중 보험계약마진이 높게 측정[12)]되는 보장성보험 비중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IFRS17 적용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계약부채[1)2)]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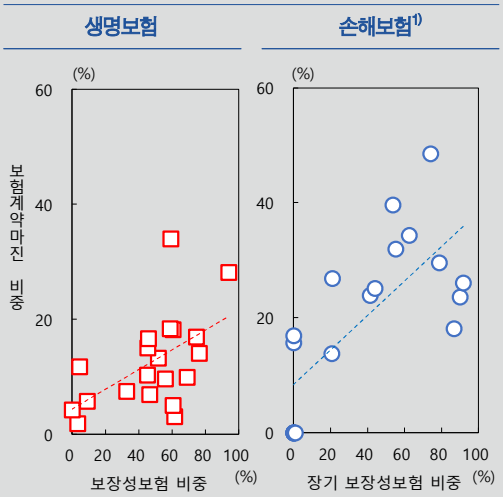


주: 1) 재보험계약부채 포함
2) 단위는 조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이를 개별 보험회사별[13)]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업권의 경우 보험계약마진 비중이 보장성보험 비중과 대체로 양의 관계를 보이며 2%~34% 수준을 나타내었다. 손해보험업권의 경우 대부분의 계약이 보장성보험으로 구성되는 만큼 보험계약마진 비중도 장기형 보유 비중에 따라 14%~49%로 큰 차이를 보였다.

11)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순유입 현가(예상치)에 불확실성에 따른 조정액(위험조정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IFRS17에서는 보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험계약마진 상각을 이익으로 인식하므로, 보험계약마진 규모가 클수록 미래 인식되는 수익이 큼을 의미한다.
12) 보장성상품은 고객에게 수취한 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 등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보험계약마진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저축성보험은 수취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이 더 큰 상품으로 보험계약마진이 작다.

업권별 보험계약부채 대비 보험계약마진 비중



주: 1) 보유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마진이 높게 측정되는 장기 보장성보험 계약 비중과 비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평가 및 시사점

국내 보험회사들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은 신 회계기준 적용으로 자본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별 회사별로는 보유 자산과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라 기준 변화의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보험업권은 신 회계기준에 맞추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자산부채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 등에서 새로운 행태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시가평가가 자산·부채에 모두 적용됨에 따라 듀레이션 갭(자산-부채) 관리의 중요성[14]이 높아진 만큼, 향후 보험회사의 ALM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듀레이션 갭 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자산 듀레이션 확대 및 자산·부채 간 현금흐름 매칭에 한층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험업권이 활용해온 장기채권 현물투자 및 채권 선도거래 외에 금리파생상품 활용[15]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FVPL 금융자산 비중 확대에 따라 커질 수 있는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증권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동시에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16]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보험회사들의 투자행태 변화가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보험계약마진 관련 지표가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 만큼, 보험업권은 외형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간 보험회사들이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계약마진이 큰 보장성상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축성보험 대비 보험료 수입이 적은 보장성상품으로의 영업 쏠림으로 현금유동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험업권의 유동성 사정 등을 꾸준히 점검해 나가야 하겠다.

13) 한편 IFRS17에서는 보험계약마진의 구체적 산출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데다 측정 시 추정요소들도 적지 않아 보험회사별 계리적 가정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산정기준의 객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5.31일)하였으며, 이는 2023년 6월 결산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4)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은 시가평가, 부채는 원가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본변동성은 금리부 자산의 듀레이션에 의해 결정되지만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듀레이션 갭에 따라 자본변동성이 결정된다.

15) 금리파생상품은 현물채권 매입 등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듀레이션 확대 및 현금흐름 매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에는 위험회피회계 미적용, 파생거래 한도제한, 장기 선물시장 미발달 등으로 보험회사의 활용이 제약되어 왔었다. 모니터링 결과 개별 보험회사들은 위험회피회계 미적용에 따른 파생상품 손익의 당기손익 반영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파생거래 활용 유인 중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6) 보험연구원(2023)에 따르면 개별 보험회사들은 수익증권 비중 축소, 주식형에서 대출채권형 수익증권으로 변경, 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지 등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에 따른 당기손익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Ⅳ. 자본유출입

2023년 1~5월중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월별로 큰 변동을 보인 가운데 주식 및 채권 모두 순유입되었다. 이는 미 연준의 긴축기조에 대한 기대변화 및 주요국 은행 불안 사태에 주로 기인한다. 채권의 경우 차익거래유인 확대도 유입 요인으로 가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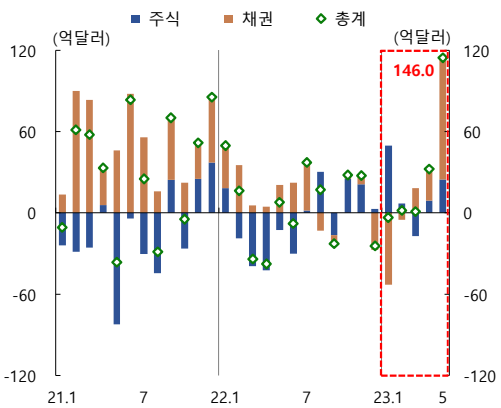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미국 및 유럽 은행권 금융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식을 중심으로 순투자 규모가 축소되었다.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순유입

2023년 1~5월중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자금[1]은 월별로 큰 변동을 보인 가운데 146.0억달러(주식 73.2억달러, 채권 72.8억달러) 순유입되었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1월에는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 완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순유입되었으나 2월 들어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 긴축 강화 우려가 확대되며 순유입폭이 축소되었다. 3월에는 SVB·CS 사태 등의 영향으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며 순유출되었다. 4월 이후로는 반도체 업종 등의 업황 개선 기대로 다시 순유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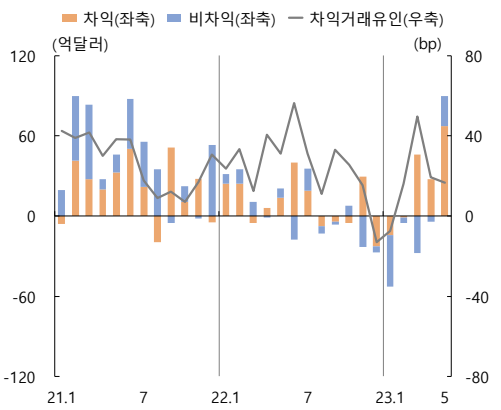
외국인 채권자금은 1월에는 해외 공공기관의 투자여력 약화, 신흥국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차익거래유인 축소 등으로 큰 폭 순유출되었다. 그러나 2월 들어 차익거래유인이 다시 확대되면서 동 거래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의 투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4월 이후에는 주요 국내채권 투자국의 외환보유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을 지속하였다(그림 Ⅳ-1, 그림 Ⅳ-2).

그림 Ⅳ-1.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1]



주: 1) '+' 는 순유입, '-' 는 순유출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Ⅳ-2. 차익거래자금 유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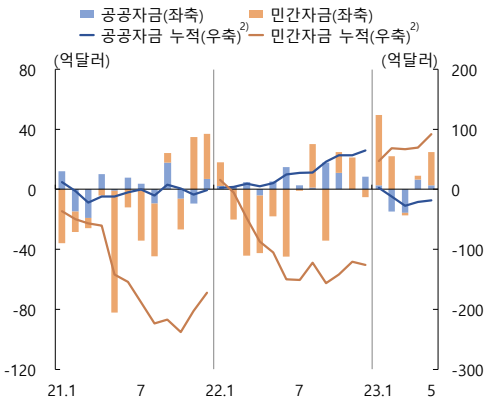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1) 주식은 상장주식(KOSPI·KOSDAQ)의 장내·외거래 및 기업공개(IPO)를 포함하며(단, ETF·ELW·ETN 등 제외), 채권은 상장채권의 장내·외거래 기준(RP거래 및 만기도래분 반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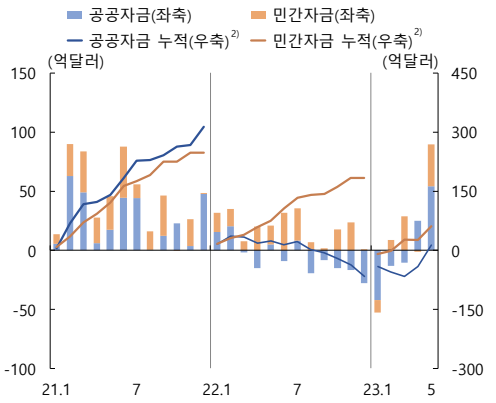
투자주체별로 보면 주식자금은 민간자금이 순유입을 주도하는 반면, 채권자금은 4월 이후 공공자금의 순유입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그림 Ⅳ-3, 그림 Ⅳ-4).

그림 Ⅳ-3.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1]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2) 연도별 1월 이후 누적 순유입액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Ⅳ-4.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1]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2) 연도별 1월 이후 누적 순유입액
자료: 한국은행

2023년 5월말 외국인 주식투자 잔액은 698조원으로 시가총액[2]의 28.4%[3]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말(28.0%)보다 0.4%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외국인 채권투자 잔액은 238조원으로 전체 상장 채권잔액의 9.7%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말(9.7%)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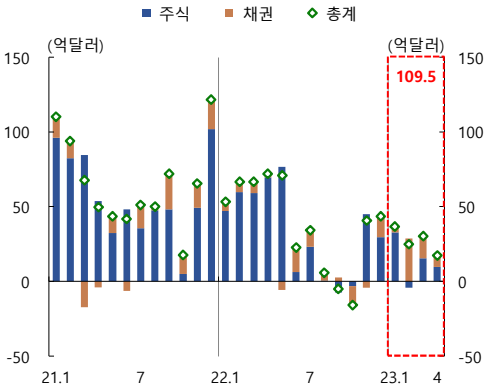
최근 주요 국내 투자국들의 투자여력 개선, 양호한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유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익거래 목적의 자금은 차익거래유인의 등락에 따라 유출입 변동성이 큰데다 선진국 은행권 불안 재부각 가능성,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상존하는 만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흐름을 계속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가폭 축소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23년 1~4월중 109.5억달러(주식 54.2억달러, 채권 55.2억달러)로 전년동기(총 258.9억달러; 주식 235.3억달러, 채권 23.6억달러)대비 큰 폭 축소(-149.4억달러)되었다(그림 Ⅳ-5).

2)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의 합계 기준이다.
3) 외국인 주식투자 잔액 중 ETF 등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보유잔액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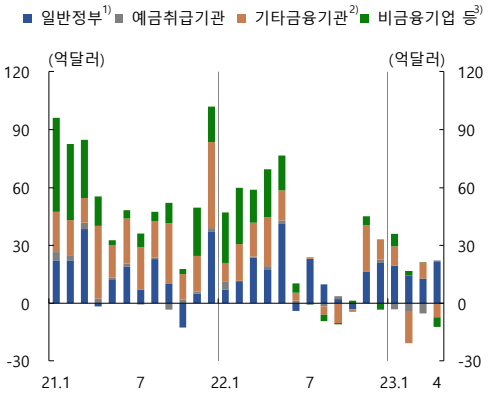
그림 Ⅳ-5.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감[1)]



주: 1) '+' 는 순투자, '-' 는 순회수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주식의 경우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는 전년동기대비 순투자 규모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미국 및 유럽 은행권 금융불안 등에 영향받아 기타금융기관, 비금융기업 등은 순투자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예금취급기관은 순회수로 전환하였다(그림 Ⅳ-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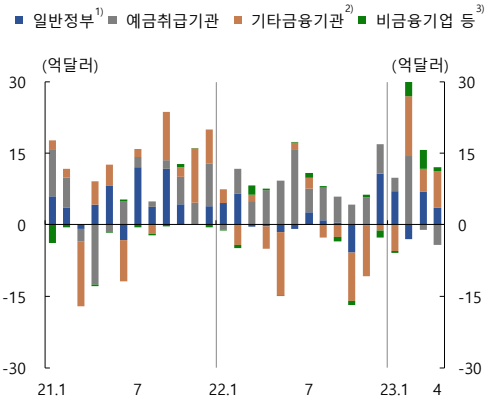
그림 Ⅳ-6. 거주자 해외 주식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주: 1)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2)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3) 개인투자자 포함
자료: 한국은행

채권의 경우 예금취급기관은 전년동기대비 순투자 규모를 축소하였으나, 일반정부, 기타금융기관, 비금융기업 등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주요국 금리 하락 기대 등으로 순투자 규모를 큰 폭 확대하였다(그림 Ⅳ-7).

그림 Ⅳ-7. 거주자 해외 채권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주: 1)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2)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3) 개인투자자 포함
자료: 한국은행

향후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연기금의 해외투자비중 확대 방침, 주요국 금리 하락 기대 등의 영향으로 순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기대 변화, 미국 중소형은행 불안, 글로벌 경제분절화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해외증권투자의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5.

최근의 글로벌 은행 불안이 달러화 자금 흐름에 미친 영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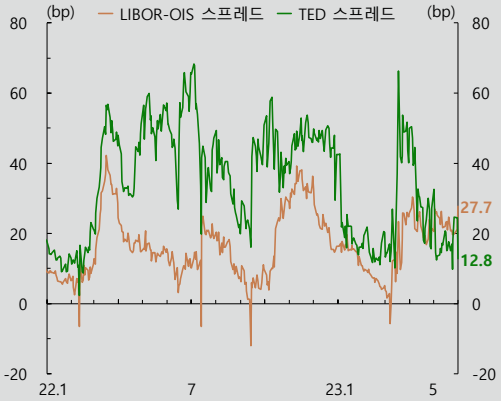
금년 3월 이후 실리콘밸리 은행(이하 'SVB') 파산, UBS의 크레디트 스위스(CS) 합병, JP모건 체이스 은행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 등으로 글로벌 은행시스템에 대한 불안심리가 크게 높아졌다[2)]. 이러한 은행부문 불안은 미 달러화 자금의 국가간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은행들이 미 달러화 자금을 중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이 이들 글로벌 은행들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거나, 글로벌 은행들이 직접 국내 증권투자를 위해 외화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달러화 자금이 유입된다.

다행히 최근의 은행 불안 사태가 우리나라 외환부문에 미친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글로벌 은행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하에서는 SVB 사태 이후 글로벌 달러화 유동성 사정과 자금흐름을 살펴보고, 국내 외화자금 유출입 상황을 점검하였다.

글로벌 달러화 유동성

SVB 사태 직후 미 달러화 유동성 사정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달러화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를 반영하는 TED 스프레드와 Libor-OIS 스프레드가 급등하였다. 또한 유로화 및 엔화를 담보로 미 달러화를 조달하는 비용인 EUR/USD 및 JPY/USD 스왑베이시스도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 당시에 비해서는 유동성 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주요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안이 잦아들면서 달러화 유동성 사정이 빠르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 상황[1)]



주: 1) 3개월물 기준
자료: Bloomberg

과거 위기 당시와의 비교

	LIBOR-OIS 스프레드[1)]	TED 스프레드[1)]	BNP 글로벌 유동성지표[2)]
GFC('08)	364 ('08.10.10)	463 ('08.10.10)	0.90 ('08.10.20)
코로나 ('20.3월)	138 ('20.3.27)	146 ('20.3.26)	0.94 ('20.3.24)
SVB사태 ('23.3~4월)	**30 ('23.4.4)**	**66 ('23.3.17)**	**0.78 ('23.3.29)**

주: 1) 단위는 bp
2) 0~1 사이의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유동성 악화를 의미
자료: Bloomberg, BNP Parib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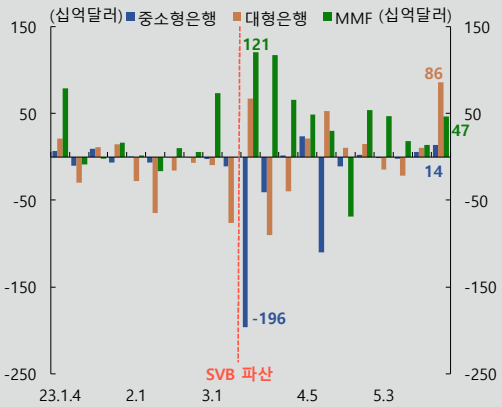
미 달러화 자금흐름

SVB 사태 직후 미국의 가계와 기업은 중소형은행에서 예금을 대거 인출하여 대형은행(자산 상위 25개) 또는 MMF로 자금을 이전시켰다.[3)] 특히, 중소형은행

1) 본고는 권나은·김동욱·이한새·김상희(국제총괄팀)가 작성, 성광진(국제기획부장)·양양현(국제총괄팀장)이 검토하였다.
2) SVB 파산·CS 인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8> 「SVB·CS 사태의 주요 내용과 정책당국 대응사례 및 시사점」을 참조.
3) SVB 사태가 발생한 주(3.9~15일)에만 중소형은행의 예금 잔액이 1,963억달러 감소한 반면 대형은행은 671억달러 증가하였다. 같

가운데 대형지역은행[4]의 예금이 대규모 인출되었다. 또한, 미국 은행들은 미국내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해외에 제공한 달러화 신용을 일시적으로 줄였고 해외은행 미국지점의 경우 예금인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본지점으로부터의 차입을 늘렸다.[5] 다만 역외에서 미국으로의 자금이동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초기 등 과거 위기시에 비해서는 적었다. 3월 하순 이후 예금유출세가 진정되고, 국경간 달러화 거래도 기존의 흐름을 회복한 반면 MMF로의 자금유입은 지속되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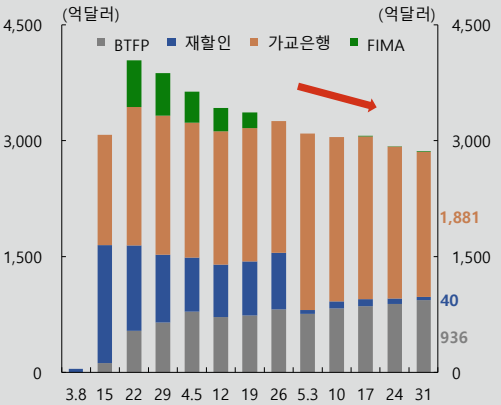
미 은행 규모별 예금 및 MMF 규모[1]



주: 1) 전주 대비 증감액, 예금은 계절조정 기준
자료: 미 연준,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미 연준은 예금인출 등으로 인한 은행들의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고 불안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시스템에 단기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하였다. SVB 사태 직후 연준의 대출자산은 불과 1주일만에 3,030억달러나 증가하였다. 초기에는 은행들이 재할인창구를 주로 활용했으나 신규 대출제도인 BTFP[7](Bank Term Funding Program) 활용이 점차 늘었다. 또한, 은행 파산으로 인한 가교은행에 대한 대출[8]이 실행됨과 더불어 해외 중앙은행에 대한 FIMA Repo[9]도 가동됨에 따라 시중의 고유동성 자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은행의 유동성 스트레스가 점차 완화되면서 연준의 유동성 공급 규모는 줄었다. 그러나 5월 들어서도 중소형은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은행부문의 유동성 수요가 지속되면서 연준의 대출잔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10]하고 있다.

미 연준의 대출자산[1]



주: 1) FIMA Repo 포함
자료: 미 연준

은 기간 MMF 규모도 국채투자 MMF를 중심으로 1,209억달러 증가하였다.

4) Luck et al. (2023)은 상업은행 자산부채통계(H.8, 미 연준)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은행을 소형(자산 50억달러 이하), 지역(50~500억달러 이하), 대형지역(500~2,500억달러 이하), 대형(자산 2,500억달러 초과)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3월중 대형지역은행의 예금이 크게 감소(-5,319억달러)한 반면 소형은행(-92억달러)과 지역은행(-700억달러)의 감소폭은 적었다.

5) 2023년 3.9~15일중 미국 대형은행은 해외점포 앞 신용을 120억달러 줄였으며, 해외은행의 미국지점은 본지점차입(순액 기준)을 637억달러 늘렸다.

6) Afonso et al. (2023)에 따르면, MMF 수익률은 예금이나 CD에 비해 정책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정책금리 1% 포인트 인상시 MMF 설정액이 2년에 걸쳐 약 6% 증가한다.

7) 모든 예금수취기관에 대해 담보증권을 액면가로 평가하여 담보 이내의 금액을 최대 1년 만기로 대출한다.

8)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파산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기 위한 가교은행을 설립하고, 미 연준은 이 가교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9) 미 연준이 외국중앙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화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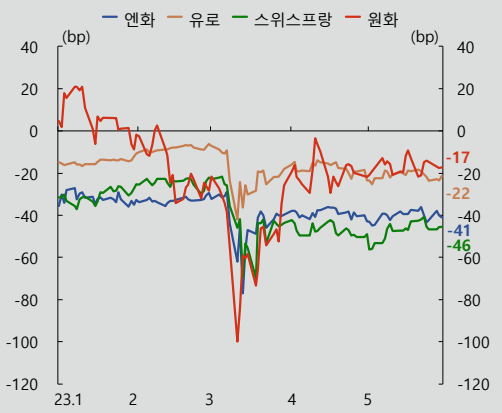
10)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인수됨에 따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연준 대출(BTFP 등)은 가교은행 대출로 이관되었다.

국내 외화자금

SVB 사태 직후 국내 외화자금시장에서도 일부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주요 통화의 스왑베이시스가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원화의 스왑베이시스도 큰 폭의 등락을 나타내었다. 3월 13일 원-달러 스왑베이시스(3개월물)는 100bp까지 확대되어 최근 10년간 평균인 35bp를 크게 웃돌았다.[11] 이는 SVB 사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분기말 외화자금 수요 등 국내요인[12]도 일부 가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시적 국내요인이 해소되고, 은행권 불안도 점차 진정됨에 따라 스왑베이시스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5월말 현재는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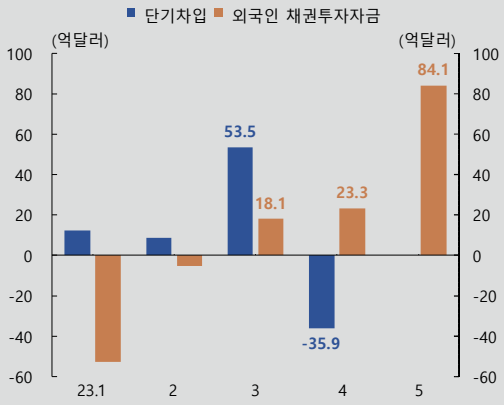
이처럼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은행부문을 통한 외화자금 유출입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과거 위기때 감소하던 은행부문의 단기차입(국제수지 금융계정의 기타투자)이 3월중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등 은행차입을 통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작동하였다. 다만, 4월에는 외은지점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본지점 차입을 축소하며 차입이 줄어들었다. 또한 차익거래유인 확대 등을 겨냥한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가 해외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늘면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3월 이후 순유입이 지속되었다. 해외 상업은행의 국내채권투자는 스왑자금의 공급 증가로 연결되면서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은행부문의 외화자금 유출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은행의 자금회수(deleveraging)로 국내 외화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되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3개월물 스왑베이시스[1)]



주: 1) 對 미 달러화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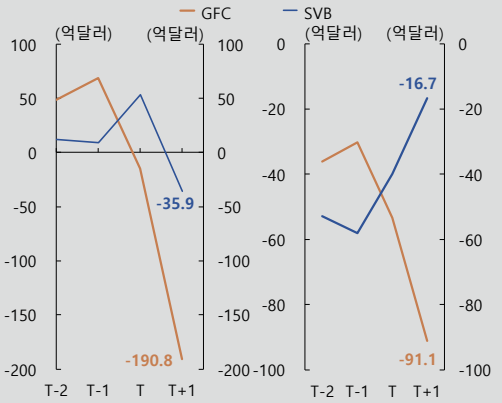
은행부문 단기차입[1)]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출입[2)]



주: 1) 국제수지 금융계정의 기타투자 내 예금취급기관 단기차입 기준
2) 결제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11)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982bp, 08.12.5일), 코로나 위기(270bp, 20.3.24일) 등 과거 위기시에 비해서는 확대 정도가 크지 않았다.
12) 국고채 대규모 상환에 따른 원화자금 여유, 비거주자의 NDF(차액결제선물환) 매도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미 달러화 약세와 함께 비거주자가 NDF를 매도하였는데, NDF를 매입한 은행은 'Buy&Sell FX스왑과 현물환 매도'를 통해 종합포지션을 중립으로 유지함에 따라 스왑레이트가 하락(차익거래유인 또는 스왑베이시스 확대) 압력을 받았다.

위기[1] 전후 자금의 유출입 비교



주: 1) T는 사건이 발생한 달: 08.9월(GFC), 23.3월(SVB)
2) 국제수지 금융계정의 기타투자 내 예금취급기관 단기차입 기준
3) T-2월 이후의 누적 변동 기준(결제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이처럼 국내 외화자금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SVB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우려 등으로 미 연준의 긴축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각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13]를 나타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빠르게 반등한 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에 대한 글로벌 자금 공급이 무난하게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14]

평가 및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VB 사태 직후 국내에서는 스왑베이시스 등 일부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은행부문의 자금유출입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글로벌 자금 공급의 도관인 초대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 미 연준의 긴축기조 완화 기대에 따른 미 달러화의 약세 등이 우리나라에 파급되는 충격을 제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내 외환부문의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우리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도 안정적인 자금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중소형은행을 둘러싼 위험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어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15]이다. 고금리 환경에서 은행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또다른 뇌관으로 주목받는 상업용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가속화될 경우 대출 부실화로 중소형은행을 둘러싼 불안이 다시금 크게 부각[16]될 수 있다. 아울러 SVB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17]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가 글로벌 달러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3) 23.3.10~31일중 미 달러화 지수(DXY)는 2.0%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다.
14) 기존 연구(Bruno and Shin(2015), Avdjiev et al.(2020))에 따르면 신흥국 통화가치의 절하, 주가 변동성의 확대 등이 글로벌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15) El-Erian 퀸스칼리지 총장은 FT 기고문(5.10일)을 통해 은행 불안(Turmoil) 사태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금조달 비용 및 대차대조표 측면의 취약성을 판단하는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 파산이 이어질 경우 은행시스템과 실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16) 최근 미 연준이 실시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관한 전문가 서베이에서도 은행부문 불안이 최우선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되었다.(23.5월 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17) 연준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3.28일, Barr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참석), SVB에 대한 연준의 감독·규제보고서(4.28일 발표) 등에서 자산 규모 1,000억달러 이상의 은행들에 대한 규제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최근 WSJ(6.5일)도 미 감독당국이 자산 규모 1,000억달러 이상의 은행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 적립을 요구할 계획임을 보도하였다.